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00 1981년8월24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August 24, 1981

EAST ASIAN LIBRARY SEP 11 1981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금년말까지) 새 봉재사 122명 도착

10월이면 1진도착 1주년

영어실력 늘고 가구도 갖춰

(위니펙=본사 송광호기자·이주원지국장) 위니펙에 취업이민 오는 한국봉재사 122명이 이달말께부터 도착한다

근년봄 한국을 방문한 랄프·킹 매니토바봉재협회장이 선정한 이들은 30~35명씩 조를 짜서 근년말까지 전원 도착할 예정이다

한국해외개발공사는 봉재협회의 의뢰를 받고 196명의 유경험 봉재사를 1차로 선정했었다

위니펙에는 작년 10월께부터 한국서 약1백명의 십급 여성봉재사들이 취업이민으로 와서 여러 회사에 분산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에 따라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은 없지만 대충 1년간 근무할 각오를 갖고 있다

한편 20일 위니펙의 박영호 한인회장에 의하면 봉재협회 간부들은 최근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신한경 미주책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봉재사들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협회측은"한국 봉재사들에게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일에 익숙하지 못 하고 학력도 12학년 이상 수료자들이라고 했지만 의심이 간다 5~6명은 취업 6개월 이내에 직장을 1~2 개월씩 쉬어서 한국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협회는 봉재사들과 문제가 생기면 박회장에게 토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박회장은 한인회가 손 댈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박회장은 박영철 토론토 부총영사에게 봉재사들의 일시 귀국을 막아달라고요청했다

박회장은 일부 한인사회 및 몇몇 봉재사들의 불신을 받은 것등을 이유로 회장직 사표를 제출했다

10여개월 캐나다 땅에서 살면서 확실히 생활터전을 마련한 많은 봉재사들은 이제 영어회화 실력이 무척 향상 되었고 점차 3~4명씩 한 아파트에서 살던 생활방식을 벗어나 단독 거처지를 마련하고 있다

나무상자를 밥상으로 쓰던 시절(※캐나다뉴스 81년2월11일자)은 이미 옛말, 카펫과 칼라TV 및 다이닝·테이블등 가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2월 본 기자가 방문했을 때 "와이셔츠 단추속에 비밀 녹음기가 있는 줄 알고 겁을 먹었었다"는 한 아가씨는 20일 "우리생활도 이젠 많이 나아졌읍니다 또 이곳 생활에도 정이 들고요…"라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외부인들과의 접촉은 여전히 요경계 특히 생활상을 얘기하는 것은 타부로 여기고 있다 본지에 봉재사 수기를 두어차례 발표한 이옥화양은 「봉재사 생활 무단노출」 혐의(?)로 동료들로부터 한동안 외면을 당했다

한 봉재사는 남편 없는 애기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교은사 또 초청

양정동창회,장학금도 송금

양정중고교동창회(회장 김상철)는 모교서 27년간 근무한 장김예 선생을 초청 4박5일간의 일정으로 토론토지역을 관광시켰다

서울 중고교사연합회 청구료취인 장씨는 26일 로스엔젤레스로 떠난다

양정동창회는 작년에 미국 각지역 동교동창회와 함께 은사초청 계획을 수립, 매년 모교에서 장기근속한 교사 1명을 북미에 관광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초청된 은사의 한국왕복 항공료등은 지역동창회가 순번제로 부담하고 북미에서의 관광비 체재비는 해당 지역동창회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토론토의 양정동창회는 작년 처음으로모교서 30여년간 근무한 이경종 고교교장을 초청 5일간 접대했다

한편 양정동창회는 금년부터 장학사업을 벌여 학생 2명의 학비 1천달러를 지난봄 모교에 송금했다

LA한인상가에 폭력난무

(LA) 최근 2~3개월간 한인사회의 각종 사건과 더불어 한인사회에서 횡포를 일삼는 「주먹」들은 교포술집 업소등 상가에 암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업자들은 즉시 경찰을 부르곤 하지만 정작 경찰이 현장에 나타났을 땐「누가 행패를 부린 장본인」이라고 지적해 주지 못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는 실정이다

이 주먹들 가운데는 상습적인 사람들도 들은있으나 버젓이 한인사회에서비지네스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경찰을 부르면 「한국사람끼리 이러기냐」고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재미없다 두고보자」등의 협박을 일삼기도 한다.

요즈음은 비교적 뜸한 편인 이들의 횡포수법은 「서비스가 나쁘다」는등 의도적인 시비를 비롯, 성격조차 애매한 행사들을 들여밀며「도네이션」등을 요구하는것이 특징이다. 이돈액수가 만족치않을 경우에는 시비를 벌인다. 하루밤이런일이 발생할때는 보통 1~2천달러의 그날 매상을 망치며, 또한 경찰이 들락날락하는 것등으로 1 주일간 장사가 안되기마련이다.

어떤패들은 자기네들끼리 일부러 언성을 높여 주위에 불안감을 주며, 경찰이 오기직전에 그치는 지능적인 수법을 쓰기도한다.

심지어는 경찰에게 잡혀가면서도「이 따위로 하면 길에서 총맞을줄 알라」는 협박까지 한다.

새로 문을연 업소나 여자들이 경영하고 있는 업소들이 주로 [illegible] 입고있다.

1위 최종대, 이인숙

볼링협회 창립대회

◇정용필 회장

지난22일 플레이·타임 볼링장(더프린×로렌스)에서 열린 볼링협회(회장: 정용필) 창립기념 볼링대회에는 80여명의 선수및 가족이 참가 성대한 경기가 벌어졌다 개인 예선전 (3회경기)에서 59명의 선수가 참가 이중 16명이 다시 결승(3회경기)을 벌였으며 부부전에는 16명이 참가했다

이날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개인전(6회전)
1위: 최종대 1069점
2위: 문덕래 1065〃
3위: 박원모 1056〃
4위: 조병준 1049〃
5위: 이인식 984〃

◇여자개인전(3회전)
1위: 이인숙 443점
2위: 장한셈 423〃
3위: 이호숙 418〃

◇여자 High Single
김순희 159점

◇장려상
남자: 유 용 근
여자: 장 상 례

◇부부전
1위: 장인태부부 499점
2위: 오상균부부 448〃
3위: 김기석부부 438〃
4위: 이상열부부 429〃
5위: 조병준부부 428점

정순석 부영사 몬트리얼 부임

(몬트리얼 정관성 지국장) 8월15일로 설치 1주년을 맞는 몬트리얼총영사관에서 지난 1년간 많은 일을 한 정주헌 영사가 24일 대만으로 전속했다

정영사 후임으로는 정순석(31세 미혼)부영사가 지난 13일 이곳 몬트리얼에 도착 20일 인수인계를 끝냈다

새로 부임한 정부영사는 부산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 경제과 졸업후 78년 외무고등고시 합격 미주 중동지역과에근무해외공관에는 처음 근무하게 된다

◇신임 정순석 부영사

한편 9월말까지 곽철로 부영사가 부임하게 되어 총영사관에는 김창훈 총영사와 두 부영사 여사무원까지 모두 4명의 공관원이있다

지현정양 고된 연습

꼬마 피겨·스케이터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유망주 지현정양(리라국교 4년)이 10일간의 캐나다수업을 마치고 25일 귀국했다

지양은 지난16일 돈힐·컴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센트럴·온타리오·피겨스케이팅대회 시니어·브라운·레이디 A조에 출전 15등을 차지했다

지양은 작년 이 대회의 쥬버닐(Juvenile)급에 출전 1등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1급 높은 부문에 출전한 것이다

지양이 소속된 스카보로·스케이팅·클럽에서는 지양만 본선에 올랐다

만9세의 피겨·스케이터로는 지양이 한국서는 물론 캐나다서도 넘버·원

한국급수 5급인 지양은 작년 캐나다에서 2급 자격을 얻었다

한국 5~6급이면 국제쥬니어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센테니알 스케이트장(마캄×엘스미어)에서 코치 이인숙여사와 함께 때로는 하루 10시간의 고된연습을 계속한 지양은 그동안 점프 더블·악셀 트리플(공중에서 3바퀴)등 기술을 배웠다 「스핀」은 이미 마스터했다

지양의 목표는 84년 LA 올림픽

코치 이여사는 75년까지 국가대표선수였다

지난 수년간 캐나다에 수학온 남자피겨·스케이터 한승종군과 스피드·스케이터 지기봉군은 모두 귀국했다.

◇지현정양이 코치 이인숙여사의 지도를 받으며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영화상연, 전도모임

런던제일장로교회

런던제일장로교회(목사 장회선)는 오는 30일(일) 하오8시 종교영화「저 높은 곳을 향하여」(주연 신영균 고은아)를 상영한다

또한 9월3~6일은 복음전도 집회를 가진다 강사는 안이숙씨(「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많은이들이 참석 은혜 받아 회망의 삶을 얻기를 바란다고

이 교회는 80년5월 건물구입 지난 6월 장로·집사·권사 임직식을 거행 런던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다

여성 울리는 상습범?

"내돈과 차 갖고 도망쳤다"

토론토 교외로 5남매의 어머니인 이옥자(가명·47)여인은 17일 천호사를 통해 이시교(43)씨를 고발했다

이여인 주장에 의하면 이씨는 이여인이 지령이사업으로 하여 모은 돈 일부와 새차(몬티악)를 갖고 잠적했다

이여인은 "정말 세상에 이렇게 나쁜 자가 있을 수 있는가? 여자들만 찾아다니면서 돈을 훔쳐 도망 여러여성이 피해를 당했다

이자를 찾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 다른여성들은 창피해서 입을 못 열고 있어 피해자들을 위해서 내가 발벗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씨는 1년6개월전 토론토 조모여인과 결혼 한국서 영주권을 받아 이주했다 이여인은 이씨가 한국에 처자식이 있으나 홀지이라고 속여 캐나다 조여인과 결혼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정체를 알고 헤어진 조여인은 이여인에게 이씨를 조심하라고 몇번 충고했다

이 여인은 77년11월 남편과 헤어졌다 이여인은 금년 2월경 중매를 통해 이씨를 알았고 4월 초순부터 동거에 들어갔다

한편 이씨의 직장동료였던 김모씨(스카보로 거주)는 이씨의 행방을 묻는 본사전화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이여인은 "미국에도 신문광고를 내서 끝까지 도망간 이씨를 찾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o. 5248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 KANG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한국관

새로운 메뉴로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서비스하고 있아오니 꼭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특별메뉴
곱창전골백반
생선초밥
꼬리곰탕
즉석불고기
민어매운탕
육회, 어초회

연말연시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대표 : 나 옥 녀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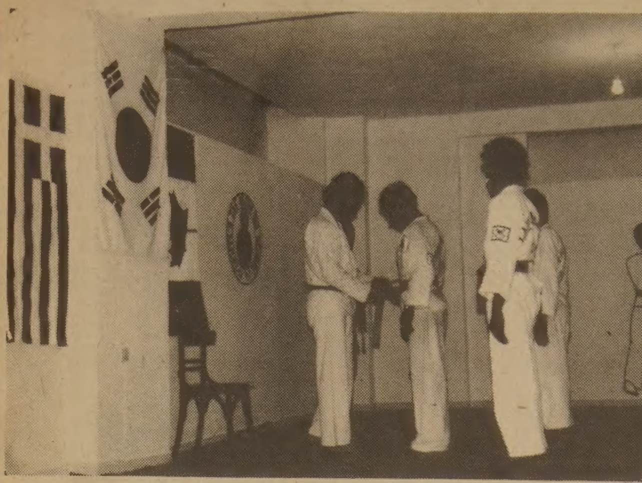
628 BLOOR ST. W. ☎: 536-0290, 531-0277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그리스에 태권도 심어

김근하사범 승단심사차 방문



◇심사후 승단띠 수여.

(몬트리얼정관성지국장) 몬트리얼의 태권도사범 김근하씨는 그리스 깔라마타에 있는 그의 도장을 방문하고, 8월중순쯤 또 하나의 도장을 열 계획으로 지난6월27일 그리스를 방문, 한달여에 걸쳐 순회시범등을 갖고 한달후인 7월22일 몬트리얼로 돌아왔다.

현재 상업에 종사하며, 몬트리얼 한인 연합교회(목사 배한국)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사범은 27일 그리스에 도착, 깔라마타의 자기 도장에서 승단심사를 가졌으며 7월4일 굴라스 시체육관에서 약 1,300명이 모인가운데 태권도 시범경기를 가졌다.

시범경기때 마다 1,500여명씩 모였으며, 매번 정부에서 주지사,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체육관장등이 참석, 태권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유는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 채택된데 관심을 품은것 같다고 김사범은 말 한다.

현재 그리스에는 김사범의 태권도장 한개만 있을 뿐이다. 약 2년전 한국사범 한명이 도장을 갖고 있었다는데 언어 장벽으로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김사범의 도장은 제자가 맡고있으며, 김사범은 매2, 3개월에 한번씩 다녀오고 있는데, 학생수는 200여 명에 달하고 있다한다.

한편 김사범은 몬트리얼에서도 경찰들을 지도한적이 있고, 국기원 소속이다. 김사범은 오는 10월경에 다시 그리스에 가서 새로 연 도장을 살피고, 승단심사를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극「돌아온 탕자」등

기독학생회 예술제

토론토한인기독학생회(K.I.V.F.)는 오는 28(금)~29일(토) 하오8시 토론토 시내 중앙공업고교 강당(286 Harbord St.×Bathurst St.)에서 기금모금을 위한 제2회 예술제를 벌인다.

회원들이 여름방학 3달동안 연습한 음악·문학·연극의 3부문에 걸쳐 약 2시간 공연할 프로는 대충 아래와 같다.

◇음악—피아노 : 김명원·바이얼린 : 이미향·첼로 : 임성찬·합창(지휘 이홍권)

◇문학—피아노 배옹을 깔고 주로 성경시편 낭송을 한다.

◇연극—앙드레·지드 원작·김명일 각색「돌아온탕자」(연출 : 김명기·강태진)

입장권 $5, 고교생까지는 $3. 예매처 종교서관.

이 기독학생회는 3년전 토론토대학에서 4명의 학생이 매주 모여 성경공부로 시작, 지금은 60여명으로 늘었으며 매주 금요일 하오 5.30~7시 토론토대학내 뉴맨센터(89 St. George St.)에서 모인다 문의할 곳—

총무 김인기(247—2998)

◇연극「돌아온 탕자」연습광경

한국, 5戰全勝

하와이, 제8회 태평양연안 배구대회서

〈하와이, 힐로—UPI〉 한국주니어 여자배구팀은 하와이 힐로섬에서 열리고 있는 제8회 태평양연안 청소년배구대회에서 20일 일본을 세트스코어 3대0(15—5, 15—7, 15—7)으로 격파한데 이어 21일 멕시코도 3대0(15—7, 15—1, 15—6)으로 연파, 5전 전승으로 토너먼트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한 남자대표팀도 21일 일본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14—16, 15—2, 15—2, 15—10)로 승리, 3승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여자부에 한국을비롯일본, 미국, 카나다, 멕시코등 8개팀이 참가하고 있으며 남자부에는 5개팀이 출전하고 있다.

한편 한국남녀대표팀은 5회, 6회, 7회대회때 모두 우승, 대회 3연패를 기록했으며 이곳 전문가들은 이번 8회 대회에서도 한국남녀팀이 모두 우승, 대회 첫 4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殺人事件발생

올들어 42번째

윌셔경찰서는 지난 16일 상오 5시55분 한인타운 근처인 952 S. BRONSON AVE.에서 심하게 구타당해 죽은 청년을 발견, 신원을 판명하기 위해 컴뮤니티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윌셔경찰서 델라듀란티서장은 회생자는 4피트10인치의 키에 1백32파운드의 체중의 30대 남자라고 밝혔다.

교민동정

◇이종철(신부 로마유학중)=방학을 이용 7월1일~9월말까지 토론토한인천주교회를 돕고 있다 교황청성음악학교 종교음악 작곡전공, 이 신부의 곡 약 80곡이 「한국가톨릭성가집」에 수록돼 있다

◇최해경(치과의사)=오는 9월1일 에그린튼× 베이뷰에서 개업한다 많은 교포들의 성원을 바란다고.

☎ : 483—9515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㊹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그렇게 많은 물을 마셔대니 결과는 당연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계속 헌트뒷쪽에 다녀 왔지만늙은 핵카우만은 그런 귀찮스러운 일을 하지않고 침대옆에 놓아둔 큰 요강을 사용했다. 그는 필요할때면 언제나 사용했고, 가득차면 그의 늙은부인이 밖에 들고나가 비워오곤 했었다.

나는 더이상 맛있는 골수뼈를 먹을수 없을만큼배가 찼다. 프란쯔도 마찬가지 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쌓여있던 고기가 다 없어지자 나중에는 국물도 홀랑 마셔 버렸다.

남자들이 뒤로 물러앉고 트림을 하자 하우믹은 쟁반을 들고나가 다시 채워가지고 들어와서 여인들끼리 둘러앉아 먹기 시작했다. 이것이 에스키모들과 처음나눈 식사였다. 하루 5끼씩을 먹는데 중간에 간단한 점심같은것을 먹었다. 이할미우트캠프에 먹을것이 있는한 하루 5끼를 먹는것도 넉넉하지 않다고생각한다.

-사냥을 나가는 사람은 3끼로 때우기도 한다. 요리방법은 달랐지만 음식은똑같았다. 고기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가끔 잘썩힌 오리알을 입맛을 돋우기 위해 내왔다.

호기심으로 나는 핵카우가 고기를 얼마나 먹는지 관찰해 보니 입맛이 당길때는 10~15파운드는 거뜬히 해치웠고, 그렇지 않을때는 좀 덜먹는것 같았다. 지방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에스키모들이 차나물을 어째서 그렇게 많이 마시는지 설명이 될것같다. 많은양의 고기에서 발생되는 체내의 독성 찌꺼기는 콩팥운동을 최고로 자주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5~6갈론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들의 엄청난 식사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방문객은 그들이 매일밤발가벗는것을 보게되지만 그들의 몸이 이런 식사로 인해서 변해져 있는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몸의 두께는 어깨넓이만큼 두껍고, 그러한 두께로 허리까지직선으로 내려온다. 이 전형적인 몸의 구조는 확장된 간이 글리코겐을 많이 저장해서 잘 먹지못하는 기간 잘견디고, 또 완전히 지방분만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결과일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늘 앉아있어서 그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다. 음식과 사슴이란 말은 바렌전역을 통해서 음식의 종류와 요리방법에 따라서달리 발음이 되기도 하지만, 같은뜻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자연그대로의 날로 먹는방법이 있다. 나는생고기를 먹으면서 맛을전혀 몰랐지만 이 방법을 많이 썼고, 별 탈을 못느꼈다. 이할미우트 사람들이 멀리캠프밖으로 나가 사냥할때는 불을 피우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다. 사슴을 잡으면 보통 뒷다리를 먼저 떼어내고, 살을 발라낸다. 그리고 골수를 먹기위해 뼈를 쪼개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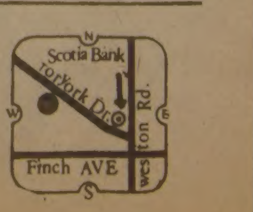
골수는 가득찼고, 고기만 주로 먹는사람들 에게는이 골수를 빼먹는 작업이 생활의 한 부분이고 즐거움이 된다. 골수를 처분하고 나면 목을따서 피를한컵마신다. (계속)

FRANCHISE베이커리

총 투자액 95,000달러
DOWN PAYMENT 40,000달러
융자액 55,000달러
※자신이 없는분에 대해서는 년봉 18,000달러 개런티(한사람일 경우)
(Wife가 같이 일할 경우 8,600달러 추가)
(부부 총계 26,600달러)
문 의 처 : Bread-Man Ltd.
240 Humberline Dr. Rexdale, Ont.
M9W 5X1
전 화 : 416—675—8930(MR. 오)
BREAD-MAN LTD.

NORTH YORK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송 대 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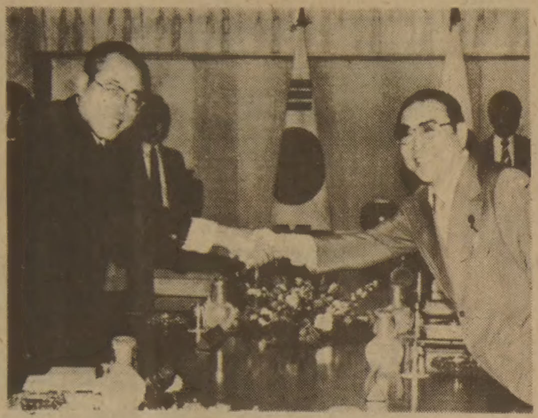
「安保經協」중점討議

어제 1次 韓日外相會談

5個年계획 重要性을 力說
日側의 적극적인 參與요청
盧外務

【東京20日=宋李彬특파원】 韓日양국은 20일 1차外相회담을 통해 한반도安保에관한 양국의 見解幅을 좁히고 특히 한반도 安保와 관련, 한국側이 요청한 安保와 經濟協力증진을 위한 日側의 적극 참여방안을 협의했다. 盧信永외무장관과 소노다(園田直) 日外相은 이날하오3시30분 日외무성에서 1次外相회담을열고 한반도安保가 일본을 포함한 東北亞전역의 安保와 직결되며 82년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를위해 일본정부의 긍정적인 한반도安保視角과 對韓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한 한국측提議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45分간 單獨회담도… 오늘 2次회담


◇20일하오 日本外務省에서 열린 제1차 韓日外相會談에 앞서 盧信永외무장관㊧과 소노다(園田)外相이 악수를 나누고있다. 겉으로는 두 外相이 웃음을 지었지만 양국현안에대한 현격한 異見幅과 소노다외상의 妄言으로 회담장은 긴장감이 감돌고있다. 【東京20日AP聯合=本社】

소노다外相, 對韓妄言
"安保·經協관련은 손묶고 내라式"
"도와달라기 곤란하니 「防波堤」들고나온다"

【東京20日=宋李彬특파원】 韓日외상회담 개막 20시간을 앞둔 19일저녁 소노다(園田) 일본외상은 經協과 안보를 관련시켜 회담에 임하려는 한국측입장을 비외교적용어를 써가며 신랄히 비난했다.

"北韓은 진정으로 對話응하라"
「政府제외」大會주장은 赤化술책

民統中央協 千寬宇의장聲明

民統韓一中央協議會 千寬宇의장은 20일 對北성명을 발표『北韓당국이 우려되는 국제사회의 파탄을 속이려는 術策에 더이상 매달리지말고 진정으로 平和統一에 기여할수있는 대화에 진지하게 응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對北聲明을 발표하고있는 千寬宇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장。

"내家族도 違法땐 制裁"
任期동안 特權層이란 있을수없다
全대통령, 光州서 强調

"어린이情緖계발 노력을"
光州 어린이公園 開幕式 致辭

全대통령 親書전달
權總長, 스즈끼禮訪

美機, 리비아機2臺 격추
地中海公海上서 訓鍊비행중攻擊받고
F14、蘇製SU22와 1分交戰

【워싱턴·트리폴리 19日AP聯合】 미해군지중해함대(제6함대)의 미사일발사실험 해역을 초계비행중이던 F14 전투기 2대가 19일상오(한국시간 19일하오2시20분) 2대의 리비아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미국방성이 발표했다.

社會漫評

절대 지지!

地平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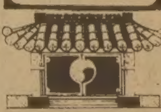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9
은 : 온스당 US 8.9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종합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R.R.S.P
•빌딩·상점
•10년이상의 경험
•모든 보험에 관한 문의 환영
최저의 프레미엄 보장
Stan Herman
(B)425-4994
(R)293-1708

심령대부흥회

강사 : 안 이 숙 선생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의 저자

일 시 : 1981년9월3일(목)~9월6일(주일)
장 소 : 런던제일장로교회
135 BRISCOE ST. E.
LONDON, ONT.
전 화 : (519) 439-6331(교 회)
(519) 686-6302(목사관)

시간안내 :
저 녁 : 목. 금. 주일(오후8시)
낮 : 주일 11시
●부흥회 전에 영화상영이 있음.
8월30일 오후 8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연배우 : 신영균. 고은아)
9월3일~6일 까지
●집회기간중에 영어설교가 있음
9월6일(주일) 오후3시

런던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장 희 선

Daily Newspaper ·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美의 리비아機 격추가 몰고온衝擊波

가다피 牽制위한 美의 物理的교훈

【워싱턴20日=曺淳煥특파원】남지중해에서 미군기와 리비아기간의 공중전으로 리비아기 2대가 격추된것은 단순한 군사충돌의 범위를 훨씬넘어선다.

베트남전쟁후 처음으로 미국기가 타국전투기를 격추한 사건이된다.

리비아해안서 약1백11㎞ 떨어진 상공서 미해군가변익 정예F14기 두대와 리비아공군의 소제SU22기두대가 단1분동안의 공중전에서 리비아기는 적외선유도 에톨미사일을 먼저 미기에 발사했으며 미군기는 열추적 에임9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와인버거美국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소제SU22가 격추된것은 미제전투기와 소제전투기간의 전자전쟁서 미제무기가 승리한것도 포함돼있다.

지난18일부터 리비아의 시드라만에서 시작되어 美동부표준시간 19일하오1시(한국시간 20일새벽2시)에 예정대로 끝난 美해군작전연습이 이번 군사충돌의 씨앗이 된것은 부인할수 없다.

소련의 진출기지로 활용중 정책의 목의 가시가되고있는 리비아의 가다피국가원수는 73년·2백해리영해선언을 했고 90해군 작전은 미국이 인정하지않은 그2백해리선 내에서 실시되었다.

12해리영해선을 대개 다수국은 인정하고 있다.

시드라만의 미해군작전이 공표된후 뉴스위크지는 레이건 대통령이 가다피를무력하게하는 방법을 수개월검토한끝에 그의 반응을 시험하기위해 와인버거국방장관에게 해군작전지시를 내렸다고 최근호에서 보도했다.

이기사를 써서 유명해진 뉴스위크誌의 마번기자는 19일 한TV회견에서 미CIA는 가다피정권 붕괴를 위한「수년계획」을 의회에 브리핑했으나 레이건이 이를승인했는지는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이뉴스위크誌보도가 사실이라면 12년간 리비아를통치해온 가다피국가원수가 레이건의 그물에걸려든셈이된다.

리비아는 이웃 차드및수단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있고 모로코의 게릴라를 지원하고있다.

롬버그미국무성부대변인은 리비아가 국제관계에서「온건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19일 국무성브리핑에서밝혔다.

미국은 지난5월 리비아가 미국내에서 가다피반대자들에게 테러를 했다는 이유로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워싱턴의 視角

리비아 親蘇化 대응 「강력한 美國」재과시

미국은 가다피가 소련을후견국으로 삼아 국제테러리즘을 조장하고 파괴혁명을 수출하는 골치덩어리로 보고있다.

지난7월말에는 美CIA가 가다피암살계획을 세웠다고 역시 뉴스위크誌가 보도하여 미국내외에 물의를 일으켰었다.

가다피 국가원수의 2백해리 영해선포가 국제적으로공인될수 없는것일지라도 미국이「리비아영향권」또는「세력범위」라 할수있는 시드라만에서 작전을 하고 걸려든 리비아기를 격추한것은 가다피에 교훈을주는 범위를 넘어「물리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는것으로풀이할수있다. 리비아는 미군기가 도발없이 영공을 순찰비행하던 리비아공군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관제사파업에 강경책을 휘둘러 미국내문제에서 강력한 지도자상을 굳힌 레이건은 간접방법이기는 하지만국제문제에서도 역시 강력한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포석이 이번사건에깔려있다하겠다.

그포석은 또한 소련을 겨냥하고 있다.

카터전 대통령은 앙골라, 이디오피아, 남예멘,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에 패밀렸으나 레이건은 소련을 후견국으로 삼는 리비아에 공세로 나가 소련의 제지세력을 밀어붙인 감이다.

와인버거국방장관이『미군기들은 아주훌륭히 임무를수행했다』고 말한것은 카터행정부때의 인질작전에서는 미군헬리콥터가 이란사막에서 좌초했으나 레이건행정부의 작전은 그와 다르다는것을미국민들에게 은근히 과시한것으로 보인다.

제3세계친투에 대담해진 소련에 공세를취하는 레이건의 도전적신호로 풀이할수도 있는 것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소련의 대리세력이되고있는 쿠바나「아시아의 쿠바」가되고 있는 베트남에는 말할것도없고 68년 푸에블로호를 납치했던 예측할수없는 호전적북한에게도 레이건은 경고신호를 보낸효과를 이번사건으로 거두었다.

예산안과 감세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레이건의 경제회복정책이 좌표를 잡은후리비아공군기격추사건이 일어난것이 결코우연한 일은 아닐것이다.

경제지표를 잡은 레이건인지라 외교국방으로 힘을 쏟을것이 예상되어온 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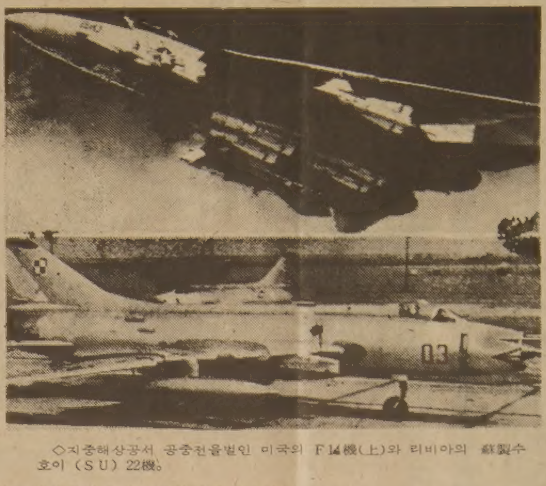
미국언론은 시드라만사건후 리비아서 긴급히 철수하고있는 2천5백명 미국인들이 어떤 보복조치를 받지않을까 하고 언급하고 있으나 키신저 전국무장관은 가다피가 자제할것이라고 19일밤TV회견서 전망했다.

미국언론은 격추사건이 일어난지 약6시간후 그러니까 동부표준시간 19일상오 7시30분께 미국동부언론이 이사건을 알고있을무렵 미즈대통령고문이 캘리포니아 서부시간 새벽4시30분께 레이건을 깨워 시드라만사건을 보고한 것은 뒤늦은것이라고 문제삼는다.

미즈고문은 대통령이 이사건에 새결정을 내려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시각에 대통령에게 알렸으며대통령도 이를 좋게생각했다고 TV회견에서 말했다.

브레즈네프가 레이건을 시험해보기전에 레이건이 대통령취임7개월만에 간접방법으로지만 브레즈네프에 선수를 쓴데대해 브레즈네프는 당장 반응하지는 않을것이나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미지수다.

세계정세는 소련이 말하는 레이건의 모험적 군비증강전략으로 미소충돌코스로 향하고있다고까지는 아직 볼수는 없으나 냉전의 분위기가 되살아나고있다.



◇지중해상공서 공중전을벌인 미국의 F14機(上)와 리비아의 蘇製수호이(SU)22機。

리비아攻擊 計劃的 헤이그國務 비난

【워싱턴19日=聯】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은 19일지중해상공에서 발생한 리비아공군SU22전투기의 미해군F14전투기에대한 공격이전혀 예기치못했던 사태는 아니라고 밝히고 리비아측공격은 계획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헤이그장관은 CBC방송과의 회견에서 아랍강경국인 리비아와의 경험에비추어 이같은 공격이 전혀 예기치못했던것은 아니라고 전제,『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않기를 희망했으나 불행하게도 이번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헤이그장관은 18일 하룻동안 90해군의 기동훈련구역에서 리비아공군기에 의한 침범사례가 70건이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리비아 전투기의 이번공격은 계획적인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헤이그장관은 리비아연안 지중해상에서 실시된 미해군기동훈련을『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권리의무를 가까운 장래에 축소시키겠다는 레이건 대통령과 미정부의 명백한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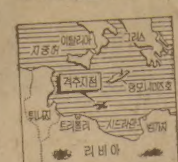
◇兩國 戰鬪機諸元

	F14	SU22
기 종	2인승 가변익 다목적 전투기	1인승 가변익 전술 전투기
엔 진	쌍발 터보 엔진	單軸[illegible]·더블엔진
최고속도	마하2·4	마하2·17
적재무기	20㎜ 발칸포, 스패로우 미사일 4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4개, 피닉스 미사일 6개	30㎜ NR30포 2개, 소련제 AA2 공대공 미사일
최대적재시 중량	3만3천7백24㎏	1만9천㎏
최대고도	1만5천2백40m	1만8천m
시간당 최고속도	2천9백㎞	2천6백㎞

격추상황

【로스앤젤레스19日UPI=聯】레이건 미대통령은 지중해상공에서 발생한 리비아전투기격추사건에 관한보고를 사건발생6시간만인 19일하오 8시24분(한국시간)에 에드윈·미즈 백악관고문등 보좌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래리·스피크스 대변인이 밝혔다.

스피크스 대변인은 긴급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기위해 지난17일부터로스앤젤레스에 와있던 레이건대통령이 사건발생 6시간이지난 새벽4시24분(현지시간) 숙소인 그랜드·호텔에서 에드윈·미즈백악관고문으로부터 리비아 전투기격추사실에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스피크스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힌 사건발생시간및그후의 과정은 다음과같다. (시간은 한국시간)

△19일하오2시20분=약1분동안의 교전끝에 미해항모니미츠호에서 발진한 F14전투기 리비아의 소제SU22전투기격추。

이 공중전은 리비아해안으로부터 96㎞떨어진 공해상공이었다.

△하오3시=국방성의 전국軍지휘센터에서 근무중이던 필립·캐스트 합참작전참모장으로부터 사건발생 6분만에 보고를받은 캐스퍼·와인버거 국방장관은 곧바로 미즈백악관고문및 리처드·앨런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실을 알렸다.

△하오6시30분=국방성이워싱턴의 기자들에게 이사건에관한 공식발표를 시작。

△하오8시24분=사건보고를위해 수면중이던 레이건 대통령을 깨움。

◇세계 각국반응

蘇、海賊行爲비난

【뉴욕20日UPI=聯】소련은19일 미국의 리비아전투기격추사건을『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蘇관영 타스통신은이날 美해군F14전투기와 리비아공군기의 충돌사건을 간단히보도했으며 蘇TV도 이 사건을 보도했으나 격추된 리비아공군기가 소제SU22기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외무성 소식통은 정부가 19일 하오5시 주일미대사관으로부터 사건모를 보고받았다고 밝히고 이사태가 다른 위기상황으로번지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東京AP=聯】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PLO는 공식논평을 통해 미기들의 리비아기격추는 리비아에 대한『흉악한 공격행위이며 테러주의적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이에대해 아랍국들의『혁명적 조처』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베이루트AP=聯】

▲이집트=국방성대변인은 이집트가 이사건에 직접 개입되지 않았기때문에 논평할 것이 없다고 말했으나 익명을 요구하는 군고위당국자는 이집트가 직접 개입되지 않았지만『우리는 리비아의 행동을 예의 주시할것』이라고 말했다. 【카이로AP=聯】

▲시리아=국영방송은 이사건을 리비아에대한 미국의 공격행위이며『아랍해방의 행진에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계속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다마스커스UPI=聯】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본부=미국은 나토맹방들에게 사건의 내용을 브리핑해주고 나토맹방들이 이사건을 성급하게 비판하지말아줄것을 요청했다. 【브뤼셀AP=聯】

"中東평화붕괴 美에모든책임"

가다피 軍事力으로 主權수호

【아든19日AP=聯】무아마르·가다피 리비아대통령은 19일 아랍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붕괴의 책임이 전적으로『미국과 그 하수인』들에 있다고 주장하고 군사력만이 미국의 침략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선언했다.

리비아·이디오피아·南예멘을 잇는 반서방동맹결성을 추진하기위해 아든을 방문중인 가다피 대통령은 이날3국정상회담폐막연설을 통해 미국등 외부세력의도전은 이미 위협수위에 접근하고있다고 주장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외부세력의위협에대해 결코 굴복하지 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

그는 또『미국과 그 하수인』의 침략위협에직면한 리비아와 그 맹방들은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 외부세력의 침략정책을 종식시키기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가다피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공군기 2대의 격추 소식이 발표되기전에 나온것이다.

【베이루트19日UPI=聯】리비아 국영통신 자나는 18일 미6함대의 지중해훈련에 관해 강한 어조의 논평을 한바 있다. 그내용은 다음과같다.

미국의 제6함대가 지중해의 리비아 영해상에서 핵항모 니미츠호와 많은 전투기들을 동원,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또 미국의 테러분자들이 리비아인민에 대한 침략행위를 계속하기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리비아혁명과 혁명지도자인 무아마르·가다피 국가혁명의 이같은 무력도발행위에 맞서 리비아인민은 영토·영해·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침략자가 미국이든 혹은 다른나라든 관계없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레이건의 中性子彈에 유럽이 온통反核불길

連日데모에 蘇서도 맞장구

각국 政府마다 對策부심 美선"보채는아이"로일축

"레이건은 미친 카우보이" 격렬한 非難도

코펜하겐의 일간지 엑스트라·블레더트는 최근 신문 한면이 꽉차게 레이건 대통령의 사진을 싣고 크레이지(미쳤다)고 굵은 제목을 달았다.

그런가하면『레이건은뉴트론 카우보이(중성자탄으로 무장한 카우보이)』라고 쓴 피킷을 든 성난 反核시위대열이 연일 헤이그와 암스테르담의 넓은 도로를 메워 흐른다.

프랑크푸르트의 경찰도 에쉬본 미군기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는 군중들의피킷을 뺏어 내동댕이 치는 것을 일과로 삼고있다.

이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레이건 대통령의 중성자탄생산결정에 잠들었던 유럽대륙의 밤낮없는 反核활동의 일면이다.

유럽사람들 가슴속에 도사려있던 평화주의에 당겨진 불은 조용한 다수에게로 확산돼가고 있다.

소련은 유럽대륙의 이같은 평화주의에 교묘하게 맞장구를 친다.

관영언론을 총동원하여『중성자탄은 자본주의국가가 만들어낸 무기답게 물질적 가치에는 손상을주지 않으면서 인명을 대량으로 죽인다』고 선전공세를 편다.

브레즈네프는 서방언론과 접촉을 넓히면서『만약 스칸디나비아제국에 핵무기가 배치되지않는다면 소련은 이지역접경에서 무기를 철수하겠다』고 달콤하게 말하고 있다.

과연 유럽反核주의자들의 평화로비가 무엇을 해낼까.

유럽에는 무정부주의자와 사회주의자、환경론자、그리고 종교계인사들을 망라한 거대한 反核우산(엔티 뉴클리어 엄브렐러)이 형성되어 있다。그들의 영향력은 자기집의 안마당이 核전쟁터가 되어 희생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조용한 다수를 쉽사리 결집할수도 있다.

그들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력증강계획을 훼방놓을수도 있고 그들의 의사에 거슬리는 정부를 절름발이로만들어 놓을수도있다.

NATO의 북쪽날개 덴마크、노르웨이의 정치지도자들은 들끓는 反核여론을 이기지 못해 스칸디나비아를 非核地帶로 만들라고 주장할정도다。벨기에 연립정부도 反核데모를벌이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닐지라도 시달리고있다.

서독과 네덜란드에서는 NATO의 퍼싱、크루즈 [illegible] 소련의 핵위협은 더욱 증대된다。소련은 중성자탄 발사기지를 신속하게 제거하려 할것이다。집가까운 곳이 싸움터가 되는것을원치 않는다』는게 유럽反核주의자들 생각이다.

그러나 미국의 와인버거 국방장관과 앨런국가안보회의고문、미즈 백악관보좌관은 유럽의 反核데모군중을 시끄럽게 울어제끼는 철없는 애들로 보아넘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는 미국 언론도있다。와인버거장관은 NATO의 탱크가 1만1천대인데 비해 소련은 4만4천대를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거기에 소련은 지난3년간 6백60基의 SS20미사일을 배치、서구를 겨냥하고있다.

소련은 물론 SS20이 낡은 SS4、SS5를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SS20미사일은 1基당 3개의 핵탄두를 운반할수있기 때문에 소련의 對西方핵전력이 3배나 증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유럽에 중성자탄、퍼싱、크루즈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소련은 6백60對0의 절대적 핵우위를 갖게된다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유럽의 중성자탄반대자들은 소련을 위해 선전氣球를 띄우고 있다』고 신랄히 공박했다.

이에대해 영국의 역사가며 평화주의자인 E·P·톰슨은『유럽의 反核운동은 親蘇도 親美도 아니다。이것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문제를 미국에 맡기지않고 유럽스스로 해결하자는 노력』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으로서는 유럽의 反核운동이 NATO의 콘센서스를위협하지않을까우려하고 있다。헤이그장관은『우리는 유럽의 反核운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있다。그렇지만 그것이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못박았다. 【崔相鎬기자】

◇「중성자탄에 할리우드가 깜짝놀랐다」—시애틀 시내의 담배선전간판이 정치선전용으로 둔갑했다。간판주인은 곧본래의목적인 담배선전에 쓸수있도록 간판을 바꾸겠다고 밝히고있다。【AP】

스리랑카、국내騷擾사태로

政黨·勞組활동금지

【콜롬보19日UPI=聯】스리랑카정부는 19일 모든 정당과 노조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이에 최근의 국내소요사태에 대한 외국개입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야당인 스리랑카자유당의 중앙당사를 접수했다.

주니우스·자예와르데네 스리랑카 대통령은 이날 국방성에 내린 지시를 통해 모든 정당과 노조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시리마보·반다라나이케전수상이 영도하는 자유당의 6층 건물을 접수토록 했다.

스리랑카정부는 최근 인종폭동이 발생、11명이 사망하자 17일을 기해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아나타、티사·데알위스정부대변인은 최근의 국내소요사태에는 외국의 음모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같은 외국개입가능성에대해 특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油價 35弗협의

OPEC 基準價 타결전망

【제네바20日AP=聯】석유가격인상과 생산량 축소문제를 협의하기위해 제네바에 모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배럴당 원유기준가격을 35달러로 통일하는데 합의할것같다고 타야에·아브델카림 이라크석유상이 19일밤 밝혔다.

아메드·자키·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석유상도 OPEC회원국대부분이 주장하는 36달러선 인상에 사우디가동의할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종래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면서『관망해보자』고 답변、35달러선 타결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재 OPEC 회원국중 최저가격인 배럴당 32달러를받고있는 사우디는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35~36달러를 받도록 압력을받아왔으나 이제까지 34달러이상의 기준가격은 곤란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중해상공에서 미국과 리비아간의 공군기충돌사고가 있은뒤 아랍의 주요산유국원수들이 배럴당 36달러를 받도록 다시 사우디에 압력을 가하고있어 사우디와 다른 OPEC회원국들이 절충、35달러선의 기준가가 책정될것이라는 관측이다.

東獨 공산체제 改革요구

反政 8명체포

【베를린19日UPI=聯】동독당국은 최근 폴란드에서와 같은 공산체제개혁을 요구하는 동독인8명을 체포했다고 19일 西베를린의 한인권기구가 밝혔다.

동독내 반체제인사들의 행적을 지켜보고있는 인권단체는 체포된 8명가운데 7명은 동독서남지방의 공장노동자들로서 공장집회에서 국영노조인 자유독일노동연맹의 민주화를 요구한지 2、3일만에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들 노동자들이 폴란드 자유노조가 폴란드에서 민주화를 요구한것을 예로 들면서 노동연맹의 민주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단체는 그밖의 다른한사람은 바이마르시의 의사인빌헬름·코크라고전하고 그는폴란드자유노조에 성금 4천달러를 기부한혐의로 체포돼징역4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오늘의 역사 <21일>

▲度量衡法 공포 (1909)
▲페르시아,國號를 이란으로 개칭 (1935)
▲美·蘇 통상조약 체결 (1937)
▲러시아혁명주동자 트로츠키암살 (1940)
▲全南광봉서 열차전복,100명死傷 (1951)
▲인도·파키스탄國境확정협정조인 (1952)
▲월남, 全土에 계엄령 (1963)
▲세계제1회궁기홍선수권대회 서울서 개최 (1979)

메아리

研修의「損益」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이들이 떠나는 것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자기견문을 넓히고 학구심을 높여주며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한다는 의도에서 연수여행의자유화는 크게 환영을 받았다. 반대로 떠나지 못하는 학생들과의 위화감, 부모의 경비부담, 외화소비라는 측면에서 비판도 컸다. 연수생들은 찬반의 논란을 뒤로 돌리며 3~4주일의 여행길에 나섰다. 그리고 개학을 앞두고 그들은 돌아오고있다.

새로운 제도나 시책은 실시 첫단계에서 언제나 긍정과 부정이 따른다. 부작용도 있게 마련으로 시험기간은 어떻게 지나가게된다. 연수생들의귀국을 계기로 그 여행자체의 성과를 냉정하게반성하고 판단해 보아야한다.

연수의 주목적은 대부분 외국어회화공부였다. 괴테는『외국어 하나를 익히는 일은 알프스정상을 넘기보다 힘든 일』이라고 했다. 알프스정상을 향해 3~4주일동안 얼마나 올라갈수 있었을까…。연수생들이 미국의 각대학 서머스쿨에 들어가기위한 시험 결과는 회화능력부족이 다시드러났다. 필기시험을 본 학생들은 뛰어난 성적에 놀랐으나 회화시험의 결과는 정반대였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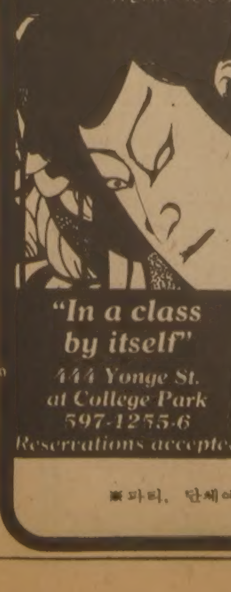
이렇게 뒤떨어진 회화능력이 그동안 얼마쯤향상되었는지 의문이 간다. 학생들 자신이 외국인을 만났을때 떠나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다. 과연 이 정도 연수효과를 얻기위해 2천~3천달러의 비용을 들여야 했는지 얼른 납득이 안된다. 이번 여름방학동안 연수생들이 쓴 외화는 미국행의 경우만 어림잡아 1천만달러가 훨씬넘으리라는 추산이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쏟을바에야 그돈을 아껴 장기적인 유학에 투자하는것이 옳다는 느낌마저 든다. 연수여행이아니라「관광연수」라는 핀잔도 있었다.

모두가 큰말썽없이 귀국하고 있는데 연수의종착점인 김포공항에서의 오점은 개운치가 않다.「보따리研修」때문이다. 10만원어치 이상의 물건을 사들고 온 일부 학생에게 세관에서 과세를 한다고 한다.

한때 공항주변에「보따리장사」라는 말이 떠돌았지만「보따리연수」의 꼬리표는 수치스러운 珍景이다. 해외연수의「得과失」을 엄격하게 저울질 해보아야한다.

일본스테이크 집
전형적인 일본식



"In a class by itself"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597-1255-6
Reservations accep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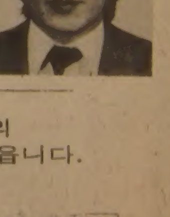
STORE HOURS
평 일:
스페샬점심시간
11:45AM~2:30PM
5:00P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IATA

서울왕복 $1,180!
●여름철 SEAT SALE
●KAL뉴욕경유 귀환 자유
★방문초청 특별요금(초청장 작성)
★저렴한 국내선 요금(SKYBUS·CHARTER)
★월부·크레딧 카드 환영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김창범 536-2155·2156 (R)492-7525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GM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東洋」을 파는 「베스트셀러의 王」

「노블하우스」 5月발간후 1位

「쇼궁」「킹·래트」「타이팬」만 千2백萬卷 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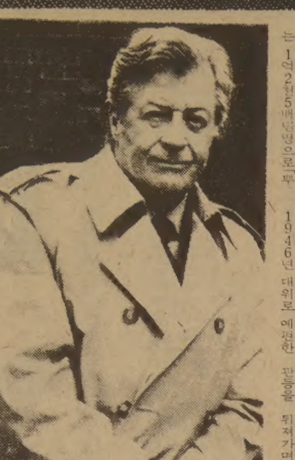
태평양戰爭참전이 첫인연…星港포로수용소서 고초

西歐서 神秘·불가사의한 東洋에 好奇心

뉴스위크紙 「將軍」의 作家 제임즈·클라벨을 表紙스토리로

海外文化

미국정치인들이 아시아를 방문할때 [illegible] 「太平洋시대」는 정치보다 소설에서 먼저 오고있다. 일본의 사무라이를 주인공으로한 소설 「쇼궁(將軍)」을 비롯하여 동양적인소재를 즐겨찾는 미국의작가 제임즈·클라벨이 「베스트셀러의 왕」이자 「재벌작가」로 화제를 모으고있다. 24일자 뉴스위크지는 그의 이야기를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아시아를 소재로한 그의소설들이 단려의 대중을 불아오고있다고 보도했다.



◇동양을 소재로한 소설을써서 「베스트셀러의왕」이된 제임즈·클라벨。

귀쿤 동티반 안부늘 그린 「노블·하우스」도 지난 5월 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즈가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지금까지 계속되고있다.

그의 작품은 TV나영화로도 센세이셔널한 반향을일으켰다. 지난 겨울 NBC·TV는 이 프로를 연속으로 5일간 내보냈는데 이때의 시청자는 미국인구의 절반이넘는 1억2천5백만명으로 [illegible] 된다.

그는 영국의 영화공급소에서 일하게됐는데 여기서 무명배우인 에이프릴·스트라이드와 결혼하게됐다. 그러나 감독이 되고싶은 그는 1953년 할리우드로 건너가 「파리」 「다섯개의 지옥의 문」등의 대본을 썼고 감독도 맡았다. 1960년 영화작가파업이 일어나자 [illegible]

그래서 1975년에 내는 것이 바로 그의 대표작 「쇼궁」으로 32주동안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나간것만도 하드·백 1백만권에 페이퍼·백 6백만권이며 10개국어로 번역됐다.

의 아편밀수를 둘러싼 여러가지 음모를 파헤쳐 1966년 「타이판」을 내놓자 「킹·래트」를 능가하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페이퍼·백만으로도 3백만권이 나간것이다. 그후 다시 영화계에서 일하던 그는 1970년 어느날 17세기에 일본을 여행한 윌·애덤스의 이야기를 듣자 2차대전때의 인연도있고해서 당장 흥미를 느끼고 런던도서관들을 뒤져가며 작업을했다.

이소설로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위치를 굳혀 이의 TV영화화권료는 1백만 달러를 받는가하면 NBC는 클라벨의 요청대로 그를 조연출에 임명하고 드라머의 명칭도 「제임즈·클라벨의 쇼궁」으로 정해야했다. 출판사들은 그의 이전작품도 「쇼궁의 저자 클라벨」이라는 명칭을 써넣었다.

쿨라벨의 소설 「쇼궁」은 [illegible] 「킹·래트」와 「타이팬」 [illegible]

고있다. 캘리포니아大에서 日本史를 강의하는 헨리·스미드교수는 『그의소설은 2차대전이후 하자, 소설가, 기자들이 일본에 관해 쓴것을 총망라한것보다도 일본에 관해 더많은것을 더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셈』이라고 평하고있다.

클라벨이 독주하다시피 하고있지만 동양에관해 작품을 쓴 영미의작가들은많이있다. 「쇼궁」이 나온 1975년이후에만도 아시아에 관한 소설들은 줄이어 나왔다. 영국의 여류작가 M·M·케이의 인도에관한 소설들과 로버트·엘레간트의 「만주」와 「왕조」, 비달의 「창조」등등….

동양에관한 작품들이 이처럼 붐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역적으로 멀어 뭔가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지역을 배경으로 삼고싶어하는 소설기법상의 원인으로 볼수있다.

그러나 이것은 서구세계가 점차 동양의 중요성을 깨닫고있다는 반증도된다. 특히 일본의 경제성장은 서구에충격을 주어 이를 분석하는 많은 논·픽션의 저술이 나왔는데 이런 호기심이 픽션부문으로 넘쳐흘렀다고 볼수있다.

한 문화계인사는 『지금은 아시아로부터 배울때다』고 말하고있다. 【뉴스위크誌】

하와이편지

〈題字·尹致暎〉 윤치영 ㉖

苦難의 하와이生活

農場서 李박사와함께 低賃받고 노동 방황하면서도 3·1節엔 힘찬「만세」

하와이생활은 괴롭기도 했으나 나에겐 배고픈 나날이기도 했다. [illegible] 「太平洋 28」를 만들때는 아침은 15센트에 빵한개, 점심은 대우고 점심도 [illegible]

[illegible]

◇李承晩박사와 함께 자주찾던 하와이의 韓人교회。처음엔 스쿨街에있다가 30年代末 릴리하街에 新築됐다。

[illegible]

文豪의 名言

생·텍쥐페리

〈1900~1944〉

프랑스 小說家。名門貴族의 후손으로 리옹서 남。航空會社에 취직, 飛行士생활을 하면서 작품 발표。2차大戰중 코르시카섬 基地로부터 出擊, 소식이 끊겼다。

사랑은 마주 보지않고 같은方向을 보는것

사랑한다—그것은 서로가 마주보는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것이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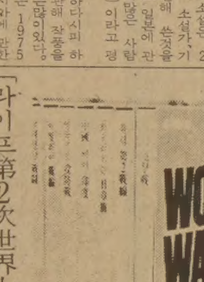
비행기 조종사로 활약, 그 체험을 살려 「夜間飛行」 「人間의 土地」 「싸우는 操縱士」와 童話 「어린 王子」로 文明을 논한 宋의 大作 「城砦」 등 珠玉의 작품들을 남긴 생텍쥐페리 (Saint-Exupery Antoine de)는 리옹태생.

[illegible]

出版情報

「라이프第2次世界大戰」10권

글과 사진 함께엮은 近代史압권



세계 인간의 모든 면모를 포착한 제2차 대전의 모든것을 글과 사진으로 보여주는 「라이프」 제2차世界大戰 10권이 국내에서 번역돼 나왔다.

[illegible] 【한국 타임라이프社刊·12만원】

읽을만한 새책

千里駒 金東成 (金乙漢編)

[illegible] 【乙酉文化社刊·2천8백원】

開國 (6卷·李台元著)

李成桂의 朝鮮건국과정을 특이한 시각에서 다룬 장편소설. [illegible] 【태창문화사刊·2천4백원】

風速計

"文化院 사회교육기관으로 살려야"

전국연합회에서 活性化방안 호소

鄕土문화센터로서의 文化院이 제기능을 다할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李殷相)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활동에 그쳐왔던 문화원을 활성화, 그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구실까지 말도록 하는등의문화원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호소하고있다.

[illegible]

【熹】

流星의 賦

〈163〉

李炳注作 李友範畵

山空花自紅 ⑬

[illegible]

한국기원

영업시간 : 1시~11시
653A BLOOR ST. W.
☎ 533-0168
부설 : 고려전자칩

심령대부흥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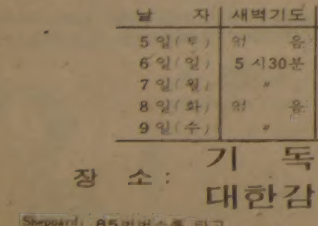
강사 : 김 기 동 목사

할렐루야! 우리주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포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본 교회에서는 한국에서 "말씀과 신유와 귀신쫓는 권세"를 가지시고 현재 한국에서 기적적으로 부흥되고 있는 **성락침례교회**(현재 6,000명 교인) 담임목사이신 김기동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9월5일부터 9일까지

날 자	새벽기도	낮 공 부	저녁예배	비 고
5일(토)	없 음	없 음	7시30분	
6일(일)	5시30분	오후2시 대예배	〃	새벽안수기도
7일(월)	〃	11시	〃	〃
8일(화)	없 음	없 음	〃	안 수 기 도
9일(수)	〃	〃	〃	〃

장 소 : 기 독 교 대한감리회 서머나교회



4

교회주소 : 675 SHEPPARD AVE.E. WILLOWDALE
전화연락 : 752-9860
752-9727(김옥희 전도사)
751-5831(엄기옥 장로)

사람을 찾습니다

본 명 : 이 시 교
(또는 이삼구)
나 이 : 43세

이 자는 한국에 처자식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총각을 가장하여 토론토의 한인여성과 결혼 이곳 영주권을 획득하고 캐나다에 온 후 곧 동 여성과 헤어져 미국 뉴욕등지와 토론토의 수많은 남편 없는 이혼여성들을 농락 돈을 갖고 도망치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내었음

본인은 이 자에게 1만달러 이상의 돈과 새 자동차(폰티악 80년도)를 사기당함으로써 이 자를 만천하에 고발하여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고하니 혹시 이 자의 거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 자의 팔뚝에는 한국에서 여자에게 입으로 물린 상처가 있으며 콧수염을 기르고 있음

연락처 : 291-4547 미세스 윤

내일부터 8強격돌

北一—全州 釜山 승자 / 大邱—善隣 / 慶北—淸州 在日 승자 / 釜商—光商

전력伯仲·勝敗 예측불허
善隣·大邱 최대이벤트

鳳凰大旗 고교野球

어제 降雨로 두게임 順延

종반에 접어든 제11회 鳳凰大旗 전국고교야구대회의 8強대진이 확정되었다. 鳳凰大旗대회는 20일 내린 비로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를 잠시 식히며 21일 3회전의 남은 2경기를 치르고 22일부터 4強을 가리는 준준결승전에 돌입하게된다.

준준결승서 격돌할 釜山商—光州商高、淸州高·在日同胞승자—慶北高、大邱高—善隣商高、全州高·釜山高승자—天安北一高(이상 22일)는 거의 모든 팀들이 상대팀과 막상막하의 전력을 갖추었거나 근사한 전적으로 3회전을 통과、예측불허의 접전을 전개할것으로 전망된다.

8強대결중에서도 공포의 타력을 가진 善隣商高와 승승장구의 신진세력 大邱高의 대전이 대회 패권향방을 예측할 최대 이벤트로 주목을 끌고있다. 최강의 전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면서도 청룡기와 화랑기 결승서 두차례나 쓴잔을 마셨던 善隣商高는 金健友·朴鍾俊·李바오로의 튼튼한 마운드와 金健友·朴鍾俊·趙永一·李敬幸의 막강한 타력으로 패권의 3연승을 거두며 봉황대기 첫 우승의 꿈에 부풀어있다. 善隣은 3회전까지의 3게임에서 15득점、2실점을 기록했으며 투수방어율 2·16의 안정된 성적을 보였다.

대붕기대회서 창단 5년만에 처음 전국대회 우승의 꿈을 이룬 大邱高는 大邱에서의 우승이후 상승일로를 치달려 강적 群山商高를 무너뜨리며 준준결승에 올랐다. 大邱高는 팀 타율 3할9푼7리로 오히려 善隣商의 3할1푼8리를 능가하는 강타력의팀. 그러나 李滿雨·李成根의 마운드가 善隣의 매서운 방망이를 얼마나 막아낼지 승부의 관건이 되고있다.

光州商高는 3회전까지 釜山商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고 받았을뿐 팀타율2할9푼7리(光商)와 2할4푼6리(釜商)의 비슷한 공격력을 가지고있다. 光州商이 馬承龍·朴京柱·孫文坤의 비교적 넉넉한 투수진을 구비한데 비해 釜山商은 에이스 李弦澤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방어율에서는 오히려 釜山商이 2·25~3으로 앞서고있다. 光州商은 3게임에서 6개、釜山商은 2게임에서 3개의 실책을 범해 비교적 담은수비를 보였다.

慶北高가 3할7푼2리의 높은 팀타율과 침착한 왼손 에이스 成俊의 역투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에 대적할 것으로 보이는 在日同胞팀은 참가팀중 가장 뛰어난 58타수 24안타、4할1푼3리의 팀타율을 기록、무서운 타격전을 예상하고있다. 在日同胞와의 3회전 고비를 남기고 있는 淸州高 역시 투수력보다는 타력에 의존하고있으나 아직 타선에 불을 당기지 않은 듯한 느낌이다.

대회 2連覇에 도전하고있는 北一高는 安迎洙·河仁秀의 역투와 타자들의 고른 활약으로 2게임에서16득점、3실점의 일방적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崔在明·金賢澤등의 하위타선은 상위타선을 능가하는 폭발력을 보여 北一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고있다. 이에 대적할 全州高나 釜山高도 3할대에 이르는 팀타율로 상대를 압도、北一과 선전할것으로 보인다.

◇熱狂하는 鳳凰球場 스탠드 — 一投一打에 환호하는 鳳凰구장의 스탠드。 鳳凰大旗는 19일까지 대회14일동안 37만9천여명의 유료관중을 기록했다.

鳳凰대회 記錄도 풍성

昨年보다 타격전 熱氣띠고 홈런은 10個
最多득점기록은 大邱高—普成戰의 14對1
최대관중은 群山高敗戰한날 3만4천명

홈런 제11회 鳳凰大旗는 지난해에 비해 더욱활발한 타격전을 펼쳐 팬들을 열광시키고있으나 홈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편. 14일동안 10개의 홈런이나와 더욱 귀하고 값진기록. 대회1호홈런은 개막경기인 光州商—馬山高전에서 光州商의 4번張彩根이 9회초 1死후 馬山高투수 安性洙를 좌측담장으로 넘긴 솔로홈런. 馬山高의 3번金龍權도 9회말 우월솔로로2호를 기록했다. 仁川高의 金東基는 浦鐵工高와의 2회전 8회말 좌중월솔로로대회10호를기록했다.

◇대회 홈런

1호	張彩根	(광주상)	솔로
2〃	金龍權	(마산고)	〃
3〃	李龍洙	(대구상)	〃
4〃	葛鍾伸	(동포팀)	〃
5〃	鄭成龍	(포철공)	〃
6〃	李天宰	(경동고)	〃
7〃	金龍德	(배명고)	2점
8〃	李淵守	(광주일)	솔로
9〃	金東基	(인천고)	〃

득점 가장 많은 점차를 기록한 경기역시 大邱高—普成高의 3회전으로 大邱가 14—1로 5회 콜드게임승。 大邱高는 이경기서 이대회들어 최다득점을 기록했다。 한이닝 최다득점 역시 이 경기서 大邱가 기록한 8점。

관중동원 어느대회보다 많은 팀들이 참가해 가장 큰 인기를 모으고있는 鳳凰大旗대회는 관중동원에서도 최고。 3회전 진행중인 19일까지 대회14일동안 총37만9천32명의 유료관중을 모았다。 1일 최대유료관중수는 大邱高—群山商高의 2회전이 벌어졌던 8월13일(목요일)로 3만4천1백명。

최장시간경기 총49게임중 39게임을 치른 현재 최장시간을 소요한 경기는 연장15회전끝에 승부가 결정된 釜山商高와 培文高의 2회전으로 경기시간 3시간55분。 그러나 이닝당 소요시간은 15·6분으로 오히려 경기진행이 빠른편이었다。 9회 정규이닝으로 끝난 경기중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것은 木浦商—慶南商의 1회전 경기로 3시간12분。 9회로 가장 짧은시간에 끝난경기는 淸州高—城南高의 2회전으로 1시간48분。 최단시간의 경기는 大邱高—普成高의 3회전으로 1시간29분만에 大邱의 5회콜드게임승으로 끝났다。

在日同胞선수 큰활약

日本高校야구 報德·京都商 패권다툼

【東京=成仁滸기자】 재일동포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호도꾸(報德)高와 교오도(京都)商高가 제63회 전국고교야구대회(일명 甲子園대회) 결승전에 진출, 21일 大阪甲子園구장에서 패권을 겨룬다。

20일 열린 준결승전에서 報德高는 강력한 우승후보인 名古屋電氣高를 3—1로 물리쳤으며 京都商高는 鎭西高를 1—0으로 완파、두팀모두 처음으로 결승에올랐다。

報德高는 투수겸 4번타자인 金義明(일본명 金村義明)이 산발 9안타를 허용하면서 탈삼진7개、자책점 1점의 호투를 보였으며 타격서도 4타수 3안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金義明이 張勳처럼 몸집이 크며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있다고 말하고있다。

◇준결승 전적

報德高	000	110	100	3
名古屋電氣高	000	010	000	1
京都商高	010	000	000	1
鎭西高	000	000	000	0

英「코」陸上1마일 世界新 3분48초53

【취리히19日AP=聯合】 英國의 육상스타 세바스천·코는 19일 취리히에서 속행된 국제육상선수권대회 1마일경기에서 3분48초53으로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이날 기록은 英國의 스티브·오베트가 보유하고 있던 종전 기록인 3분48초80을 0·27초 단축한 것이다。 한편 美國의 레너드·네헤미아도 남자 1백10m장애물에서 12초93으로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는데 이기록은 그가 지난 79년 수립한 종전기록을 0·07초 앞당긴것이다。

한국、홈팀 힐로完破 단독先頭

大平洋沿岸 청소년排球

12명選手 고루기용… 一方的 優勢

3—0

【힐로(하와이) 20日=聯】 한국주니어여자배구팀은 20일 아침 7시반(한국시간) 하와이 힐로섬 종합체육관에서 속행된 제8회 태평양연안청소년배구대회 이틀째 경기에서 홈그라운드의 힐로팀을 50분만에 3—0으로 완파、3연승으로 단독선두에 나섰다。 이번대회의 강력한 우승후보이며 작년도대회우승팀이기도한 한국은 이날 12명의선수를 골고루 기용하며 수준이하의 힐로팀에 모두 6점만 허용한채 완승했다。 첫세트서 諸淑子·鄭香順·權貞淑등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포진한 한국은 강·연타와 속공등 다양한 공세로 단 1점만을 내주었을뿐 간단히 한세트를 선취했다。 한국은 2세트에서도 마치 연습게임을 하듯 일방적인 우세를 보인끝에 15—1로 이긴후 3세트 역시 15—4로 마무리、3—0으로 경기를 끝냈다。

◇제2일 전적 ▲여자부

한국 3 (15-1 15-1 15-4) 0 힐로
(3승) (1승2패)(하와이)

도미니카 射擊대회 出戰선수단 解團式 — 지난8일부터 15일까지 도미니카서 열린 제2회 공기총사격선수권대회 선수단해단식이 20일 泰陵종합사격장서 베풀어졌다。 이자리서 崔勝彰단장(사진㊥)은 黃忠燁부회장(사진㊧)에게 공기총주니어단체에서 우승한 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국제주니어陸上 한국選手團 장도

81년도 한국 日本 캐나다 中共 4개국 국제주니어육상대회(22~30일 日本)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 19명(임원5·선수14)이 20일 하오 KAL편으로 장도에 올랐다。

◇선수단명단 ▲단장=許昌右▲감독=尹永一▲주무=韓昇哲▲코치=洪景生 李相鐵▲선수=崔容準 宋錫春 鄭然仲 金元植 宋連植 金鍾鎰(이상남) 全貞植 田京美 李英淑 韓精愛 金順花 李順天 金希宣 李禹役(이상여)

요트協 집행부 構成

會長에 金澈鎬씨…요트하버 建設계획

◇金澈鎬씨

대한요트협회는 4개월간의 표류끝에 새집행부를 구성、정상운항에 들어갔다。 대한요트협회는 20일 金澈鎬씨(명성그룹회장)를 신임회장으로선임、새집행부를 구성、발표했다。 요트협회는 지난4월6일 본격적인 시즌을 앞두고 前회장 李鍾祿씨가 테니스협회로 옮겨가 운영이 거의마비된 상태였다。 이날 金澈鎬신임회장은 8월중 정부의 牙山灣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요트하버건설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82년 印度아시안게임 출전에 대비、경기정을 구입하고 대표선수선발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집행부 ▲회장=金澈鎬▲부회장=金鎭中▲전무=金永柱▲공보=張永桂▲총무=金鳳淵▲재무=尹宇炳▲국제=金鶴增▲계측=李華秀▲심판=金政陽▲이사=尹宗赫·李學秀▲감사=安永弼·朴鍾緖·金鎬植

文교부장관盃 漕艇 京畿大 여대부覇權

제1회 문교부장관배 쟁탈 조정경기대회가 20일 한강조정장에서 열려 京畿大는 여대부 서를포어에서 4분4초6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檀國大는 4분13초8로 2위에 올랐다。 남대부 에이트서는 檀國大·京畿大·海洋大등이 예선을 통과했다。

◇첫날 전적 ▲여대 서를포어=①경기 4분4초6 ②단국 4분13초8 ③이화 4분40초3 ▲남대 에이트 예선=①단국 3분8초4 ②경기 3분19초2 ③해양 3분38초2

李德姬、3회전進出

加첼린지 女테니스 루마니아 選手꺾어

【터론토(캐나다)20日=聯】 한국의 李德姬는 20일 캐나다의 터론토에서 속행된 플레이어즈·챌린지여자테니스선수권대회 단식2회전에서 루마니아의 비르지니아·루지치를 세트스코어2—1로 물리치고 3회전에 진출했다。 美國의 10代테니스·스타 앤드리어·예거는 濠洲의 수젠·리오를 2—0으로、팜·슈라이버는 컨디·레이놀즈를 2—0으로 각각 누르고 역시 3회전에 진출했다。 이날 루지치와의경기를 승리로 끝낸뒤 李德姬는 『가장 멋진 경기였다。 컨디션도 좋았지만 상대방이 리턴하는 볼의 방향이 잘 보였다』고 말했다。

◇제2회전전적

李德姬 2 (6-2 3-6 6-4) 1 루지치
예거 2 (6-2 6-3) 0 리오
슈라이버 2 (6-4 6-2) 0 레이놀즈

韓日탁구 교류 再開

韓一合織등 日實業팀과 친선경기

韓日 탁구교류가 단절12년만에 재개、활기를 띠게됐다。 日本탁구협회는 오는28·29양일간 東南亞를 원정중인 第一合織(남) 第一毛織(여)팀과 日本실업팀이 도오꾜(東京)에서 벌이는 2차의 친선경기를 정식으로 승인하고 第一勸業銀여자팀과 近畿大남녀팀을 한국에 파견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대한탁구협회에 알려옴으로써 양국협회가 인정하는 교류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따라 近畿大는 오는9월20일을 전후해서 그리고 勸業銀팀은 금년11월내에 양협회가 적당한시기를 선택해 친선경기를 벌이기로했다。 韓日 탁구교류는 지난69년8월 남녀실업선발팀이 日本을 원정한이후부터 두절돼왔었으며 71년 아시아탁구연맹(ATTF)이 붕괴되고 日本과 中共주축의 아시아탁구연합(ATTU)이 발족되면서 완전히 단절돼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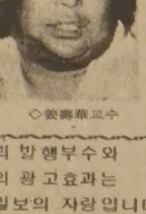
美術話題

姜壽華씨、陶藝관계
첫交換교수로 加대학 진출

도예가 姜壽華씨(慶熙大교수)가 캐나다위니펙市에 있는 마니토바州立大교환교수로 초청을 받고 8월말께 출국한다。 한국사람이 도예관계로 캐나다대학의 교환교수로 초청받기는 姜씨가 처음이다。

姜씨는 9월학기부터 1년동안 마니토바州立大 도예과학생들에게 한국자기를 중심으로한 동양자기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한국도 도자기 종주국의 하나이므로 캐나다학생들이 한국자기에 대해 알고싶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도자기는 과학으로도 풀지못하는 수수께끼가 많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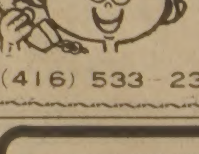
◇姜壽華교수

서울大 美大를 나온후 20년간 辰砂에 주력해온 姜씨는 가서 가르치는데만 힘을 쏟지않고 세계의 흐름을 살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姜씨는 80년12월 마니토바州立大의 초청을 받은후에도 한국의 도예를 세계에 소개하는데 바쁜시간을 보냈다。 지난5월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전시회를 가졌고 지난6월5일부터 10일까지 도오꾜에서 열린 제3회 일본新工藝展에 초청을 받아 출품하기도했다。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는길에 뉴욕에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 姜씨는 『이번 교환교수초청을 계기로 임기를 마친후에도 캐나다 각대학의 방문교수로 방학때마다 캐나다를방문, 한국도자기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目】

주간 女性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는
한국일보의 자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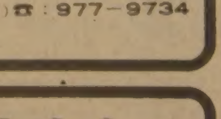


☎(416) 533-2361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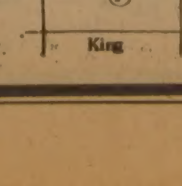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 – 4AM
토요일
일요일 : 12PM 부터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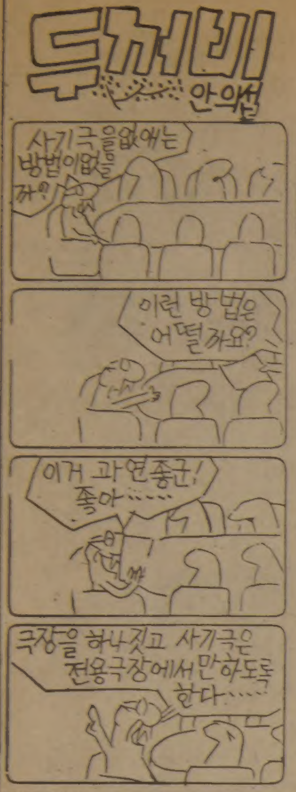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 – 12PM
일요일 11 : 30AM – 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 – 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 – 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휴일 오후3시 및 무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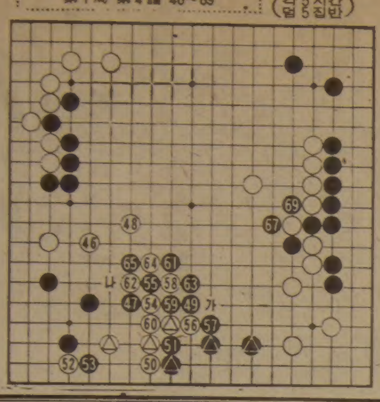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局 第4譜 46~69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徐能旭
黑(4段) 姜 勳

아무리 순한 바둑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승부유관의 접전은 피치못하는법. 그러니 이들처럼 활발한 젊은이가 대이른 격돌을 벌였다해서 새삼 놀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발단은 黑47. 앞서 白△표들에 대해 黑▲들로 하변에 쳐들어간 黑이 이제까지 준엄한 공세를 취한것이다. 名人戰에서 3판이나 패한 원인은 항상 徐6단의 선제공격을 감내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

좌우간 여기서 돌발한 공방전은 예기치않은 일대변화를 가져왔다.

이과정을보면 白50은 직접 55자리에 달려야 탈출이 편했을터인데 徐6단의 오기석인 강수가 하나의 禍源이 되어 黑51이하白64까지 건잡지못하는 혼전이었다.

수순중 黑61이 고비였다. 이수로 62자리를 잇고 잡으려하면 白에게「가」자리를 끊기게되어 당장에 수상전이 벌어진다. 姜4단도 실상 내친걸음에 61로 62자리를 이을까하고 여러번 망설인 모양이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모험을 할필요가 없다면서 일단참아 본 것이다.

예기치않은 一大變化

이리하여 白62이하 黑65로 때를 만들고 말았다. 자, 이때싸움은 얼마나 계속 되려는가.

눈뜩바로 뜨고 지켜보는 동안 결국 白68로 55의 곳을 잇고 黑69로 따내는 일대변화를 일으키고 끝났다. 그러나 이결과는 白이 오히려 재미있어 보인다는 중론.

『원래 黑65는 「나」쪽에 두어야 좋았다. 黑69까지의 교환이 절대라면 65는 「나」자리에 있어야 유리한 때문이다』

그렇다면 黑은 공연한 선제공세를 취한셈인데 이다음 또 겁나는 혼전이 발발한다. 66…58 68…55 【一凡】

한마을 60세同甲契員 놀이배 顚覆 9명 溺死

뒤따르던 배 20명救助

大清댐 溺死者중 8명이 女子

【清州=聯合】20일 낮 12시께 충북清原郡文義面後谷里앞 大清댐에서 한마을 60세동갑계원 부부등 29명을 태우고 물놀이가던 동명1호(2.5톤동력선·선주 염재천)가 뒤집히는 바람에 박호원씨(59·女·충남燕岐郡西面雙流里475)등 9명이 물에 빠져 숨지고 나머지 20명은 뒤따라오던 문의1호에구조됐다 이날 사고는 술을 마시고있던 승객들이 배의한쪽으로 몰리는 순간 배가 기울면서 전복, 참사가 빚어졌다.

夫婦동반 무허가 遊覽船타고 술마시다 船客한쪽으로 쏠려

승객들은 燕岐郡西面雙流里에 사는 올해 회갑의 동갑계원 12명으로 부부들동반, 동명1호를 3만원에 전세내어 충남大德郡新灘津邑三政里大清댐을 출발, 충북報恩郡 大清댐의 양남대교로가던 중이었다.

사고가 나자 뒤따라 오던 같은 종류의 유람선 문의1호가 동명호의 전복을 발견,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나이가 많은 부녀자 8명등 9명은 이미 숨졌고 선주 염재천씨(25·충남大德郡新灘津邑美水里)등 20명만 구조됐다.

사고지점은 동명1호가 출발지 三政里로부터 6km떨어진 댐한 가운데로 수심이 40~50m이며 내수면 보호를 위해 배의 운항을 금지한 구역이다.

동명1호는 지난 7월31일 大德郡으로부터 무허가 유람선으로 적발된 배인데 이지역에는 이같은배가 7척이나 불법으로 영업을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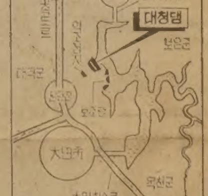
사고가나자 긴급출동한 경찰은 익사체5구를 인양하는 한편 나머지사망자 인양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선주 염씨의 신병을 확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있다.

이배에 탔다 구조된 홍순제씨(60·燕岐郡西面新岱里555)는 승선당시부터 승선인원이 너무 많아 불안했었는데 사고지점에 이르러 배가 좌우로 기우뚱하는 순간 전복돼 아수라장을 이루었고 이중 구조된 20여명만 이 뒤집혀진 배밑바닥위로 기어올라와 구조됐다고 말했다.

◇사망자

▲박호원(59·여·충남燕岐郡西面雙流里475) ▲성용순(39·여·〃337) ▲장춘덕(54·여·〃559) ▲유씨(57·여·〃) ▲김영숙(58·여·〃) ▲김순채(61·여·〃) ▲구선희(47·여·〃) ▲박신일(58·여·燕岐郡西面龍岩里) ▲황우연(61·남·〃)

◇사고빚은 大清 다목적댐 충남북에 걸쳐있는 대규모 다목적댐. 이 댐에는 무허가 유람선 7척이 불법영업을 해왔는데 이날 사고를 낸 동명1호도 불법유람선중의 하나였다.



안개철길걷다 行商부부轢死

【裡里=聯合】20일상오5시께 裡里市新龍洞 석하부락앞 철길에서 새벽일을 나가던 金형길씨(50·新龍洞436)와 부인 李복순씨(45)등 부부가 裡里발 大田행 제452 통근열차(기관사 金지권)에치어 그자리에서 숨졌다.

이날 사고는 새벽 생선행상을 하기위해 裡里역쪽으로 철길을 걸어가던 金씨부부가 안개속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기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났다.

고교생 3명이 선배때려 致死

【安東·順天=聯合】후배라고 놀리는 선배를 때려 숨지게한 10대 3명과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때려 중상을입힌 고교생7명등 모두 10명이 경찰에 구속 또는 입건됐다.

경북 安東경찰서는 20일 金모군(17·安東市太華洞)등 고교생3명을 상해치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군등은 지난18일밤 10시30분께 安東市廣石洞 물레방아다방옆 골목길에서 평소 선배라고 으시댄다며 南在德군(20·大邱계명대1년·安東市廣石洞2 39)을 끌고들어가 南군의 얼굴·가슴등을 마구때려 숨지게한뒤 南군의 오리엔트손목시계1개(시가5천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이다.

光州 어린이대공원 어제開場

無等벌에 나래편 「새싹동산」

첫날 개구장이 7만명入場

【光州=金海雲기자】전남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줄 光州어린이대공원이 無等벌에 그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20일 全斗煥 대통령내외분이 개원테이프를 끊어 문을연 光州어린이대공원은 전국민의 성원과 전남도민의 정성이 합쳐 이룩된 것이어서 그개원은 더욱 큰의미가 있는것이다.

이 공원은 지난해 5월 악몽과도같았던 光州사태의 아픔을 같이하고자 전국에서 보내온 52억원의 국민성금이 건설자금의 주축이됐고 여기에 6억4천8백여만원의 전남도민의 정성이 합쳐진 약 60억원의 뜻깊은 돈으로 1년여의 공사끝에 光州市北區雲岩洞 164일대 6만3천여평의 구릉지에 조성됐다.

그래서 4백만 전남도민들은 이 어린이대공원이 단순한 놀이터가 아닌 「어린이들의 산교육의 도장」이되기를 바라는 큰기대를 걸고있다.

대공원안의 지하1층 지상2층에 1천5백24평규모의 회관에는 어린이정신계발시설이 마련돼있다.

설로 역사관, 문화관, 송공관, 도서관, 미술실, 무용실, 남도예술실, 음악연주실등이 들어서있고 과학관, 공작실, 과학연구실, 시청각실등 지능개발을 위한 시설도 마련돼있다.

도서관은 1백14석 규모의 기탁장서 1만1천권이 비치됐고 공작실에는 콤프레서, 용접기구등 8백83점의 공작장비, 과학실에는 현미경, 환등기등 4백44점의 각종 과학기구가 마련돼있다.

또 역사관, 송공관, 공룡관, 과학관, 생활과학관등 5개의 전시실이 마련돼 어린이들이 조국의 역사와 향토문물을 한눈에 볼수있도록 돼있다.

이밖에 야외시설로는 축구장, 야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정구장, 놀이동산등이 마련돼있고 3천5백여평의 야외전시장에는 비행기, 탱크, 장갑차, 야포등 국방관계전시물과 트랙터등 현대농기구들이 전시돼있다.

공원관리를 맡은 光州市당국은 전남도내 각급학교및 청소년단체와 유대를 맺어 공원시설물을 활용해나갈 방안을 전남도교위측과 검토중이다.

21일부터는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요금은 어린이 1백원, 어른 2백원, 군경·학생 1백50원이고 공원내의 수영장에는 어른 7백원, 어린이 5백원을 별도로 받는다.

20일 개원식에는 전남도내 소년소녀, 加居국교, 羅光郡落月面 鞍馬島의 鞍馬국교 어린이등 도내 어린이 1백50여명이 특별초청, 꿈의동산을 우선적으로 견학하도록 배려하기도했다.

光州어린이대공원이 문을 열자 많은 개구장이들이 아침부터 몰려들어 하오늦게까지 공원안은 물론 공원입구로까지 초만원을 이루었다.

개원첫날이어서 무료로 공원을 개방하자 방학중인 어린이들이 준공식이 끝난 상오11시께부터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경찰은 이날하오1시 현재까지의 입장객수가 7만여명에 달하는것으로 추산했다.

어린이들사이에는 金宗鎬전남지사의 초청으로 첫뭍나들이에 나선 新安郡黑山面小黑山島와 可居島 어린이1백50명을 비롯 낙도및 산간벽촌의 어린이 1천명이 함께 각종 놀이시설을 신기한듯 살피며 환성을올리기도했다.

◇즐거운 꿈의 동산 문을연 전남어린이들의 꿈의동산인 光州어린이대공원. 개원 첫날 光州를 비롯한 전남도내 각지 어린이 7만여명이 몰려와 각종시설에서 즐거운 하루를보냈다. 【光州=金海雲기자찍음】

신입생 2學期末대거脫落

各大學, 1학년학생 무더기 學事징계

일부學校선 除籍통고까지

문교부는 대학졸업정원제 시행지침에서 1학년의 탈락을 금하고있으나 각대학들이 1학년생에 대해 징계적인 학사징계조치를 취하고있어 2학기말에는 신입생의 대거탈락이 확실시되고있다.

2학기개강을 앞둔 전국각 대학은 1학기성적 불량학생에대한 징계조치를 취하고있는데이 가운데 졸업정원제에 따른 1학년생 징계가 파격적으로 많았고 일부대학에서는 신입생에대해 학사경고가아니라 제적통고를 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0일 世宗大에따르면 학사징계를 강화한 새학칙에따라 평점4·3만점에 전학기 1·0미만인 1학년생23명을 제적했으며 이에반해 3~4학년은 4명만을 제적했다.

西江大는 평점2·5점미만 (만점4·5)인 3백43명을 경고처분하고 2회이상 사경고를 받고도 평점2·0미만인 5명을 제적했는데 이중 1학년생이 242명으로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숫자는 입학정원의 17%에 해당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大는 아직 1학년에 한해 평점2·5점(만점4·5점)미만인 6백42명을 학사경고, 이는 지난해보다 3배가넘는 숫자이다. 각대학들이 이같이 1학년생에대해 집중적인 학사징계를 하고있는것은 졸업정원제에의해 2학년말에 강제탈락시켜야할 18%(졸업정원외추가모집된30%가운데18%)를 사전에 일부제적함으로써 한꺼번에 탈락시키는데 따른 충격을 줄이기위한것인데 문교부는 이에대해 「학사징계에의한자연탈락일뿐 졸업정원제에 따른 강제탈락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말하고있다.

4년제大學 캠퍼스內 專門大 모두폐지

文教部방침

문교부는 4년제 대학과동 일한 캠퍼스안에있는 전문대학(간호전문대제외)은 폐교시킬방침이다.

문교부관계자는 20일 4년제 대학과 같은 캠퍼스를 쓰는 전문대학은 시설및 교수의 활용이란 점에서 장점도 있으나 전문대생들이 4년제 대학생들에 비해 불필요한 열등감을 갖게되고 운영면에서도 전문대가 4년제대학을모방, 특성을 살리지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고치고 대신 대학정원을 늘려주는방향으로 검토하고있다.

현재 4년제대학과 같은구내에있는 전문대는 漢陽女專(漢陽大), 弘益工專(弘益大), 仁荷工專(仁荷大), 明知實專(明知大), 朝鮮大병설實專, 崇田大병설實專, 圓光大병설實專등이다.

간부2명 추가拘束

老年福祉會관련 1천만원詐取

【속보】한국노년복지자조회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20일 자조회간부 강상경씨(45)등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은 구속된 회장玄材燮씨와 노년복지자조회가 복지시설을 건립하게되면 특혜를 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또 19일 하오 서울 中區藝場洞 한양스튜디오빌딩401호 노년복지자조회 사무실에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장부 1권을 압수, 구속된 玄씨등이 그동안 편취했던것으로 알려진 4천7백만원외에도 1천여만원을 더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玄씨등 구속된 5명외 忠南舒川郡華陽面일대의 하천부지 40만평을 임대, 개간하려했다는 말에 따라 이를둘러싼 다른피해자들이 더있을것으로보고 현지에 수사대를 보냈다.

文鮮明씨入國거부

브라질群衆들 統一敎건물공격도

【브라질리아19日AP=聯合】말썽많은 종교활동으로 최근 브라질 전역에서 물의를 빚고있는 통일교의 교주文鮮明씨가 지난6월 입국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다고 19일 브라질 외무성의 한대변인이 말했다.

이대변인은 文씨의브라질 입국신청이 기각됐다고 말했으나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를 거부했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주요신문과 TV들이 통일교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데 이어 지난수일간 통일교건물에 대한 군중들의 공격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경찰은 18일 밤에도 수백명의 청년들이 브라질리아의 한 통일교건물에 돌을던져 유리창들이 파손됐다고 말했다.

이곳 신문보도에 따르면 브라질동남부 빅토리아市와 동북부 레시페市의 통일교건물이 군중들의 습격사건을예방하기 위해 경찰의 보호를 받고있다.

颱風대드號북상중 동지나海선박注意

중앙관상대는 20일 상오11시를 기해 태풍경보제1호를 발표, 15호태풍 대드(T·H·A·D)가 이날 상오9시현재 일본 미나미 다이또지마부근(북위25·9도 동경134·8도)에서 서서히 북진중이므로 일본열도남쪽과 동지나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뇌염증세 모두7명

【光州=聯合】뇌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8일밤 뇌염증세로 앓고있는 어린이가 또입원, 올들어 전남도내에서는 모두 7명의 의사뇌염환자가 발생했다.

19일 全南大의대부속병원에 따르면 全南高興군 占岩면 金永坤군(3)이 18일밤 심한 고열과 경련을 일으키는 뇌염증세로 입원, 치료를받고있으나 지금까지 혼수상태라는 것이다.

서울시 제2副市長 사표수리

【光州】정부는 19일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雙信工營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도의적책임을느껴 제출한 朴英秀서울시장의 사표는 반려하고 張元燮서울시 제2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全斗煥대통령의 지방시찰에 수행하고있는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하오 서울시 人事문제에 관해 이번조치는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주간女性

GREAT CHINA HERBS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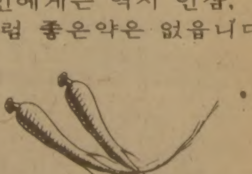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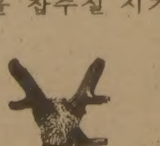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약은 없읍니다.

中国商業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 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大中華藥材行

482 DUNDAS ST. W. TORONTO, ONT. M5T1G9
P.O. BOX 5181
STATION 'A' TOR.,ONT.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OPEN : WEDNESDAY
CLOSE : TUESDAY
＊영업시간 : 9 : 00AM~9 : 00PM
977-8858~9

제2회
고교대항배구대회

초가을에 여러 동문들의 우애와 친목을 위해 제2회 고교동창대항 배구시합을 찾사오니 꼭 참석하셔서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십시다!
단결! 친목!
일 시 : 9월12일(토) 오전9시~오후6시
장 소 : Downsview Dells Park (Fire Pit №2, №1)
주장회의 : 8월22일(토) 오후7시(한국관) 주장회의에서 대전표 작성.
식사는 주최측에서 제공합니다.
트로피 : 주최측에서 전부 증정합니다
참가비 : 50달러
연락처 : 한 성 태 회장(293-6138)
황 주 빈 부회장(267-5550)
이 재 상 총무(661-7891)
약 도 :

주최 : 성동고등학교

제63회 전국체전 파견선수 등록공고

81년 10월7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출전을 원하는 선수의 개인이나 단체는 아래 요령으로 등록을 접수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종목 :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연식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풋볼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유도 검도 궁도 사격 승마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톤 태권도 조정 씨름 (이상 27개 종목)
접 수 처 :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 635 BLOOR ST. W. 537-0745, 533-8421
등록마감 : 1981년 8월 26일 오후7시
참가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
선수혜택 : 단복, 국내체재비, 기념품비는 본회부담 항공료는 자비부담을 원칙으로하되 본회 재정이 허용되면 약간 보조할 방침임
※ 모국방문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체전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에 연락을 바랍니다.

재 캐나다대한체육회
회장 이 병 권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JEWELERY SALES PERSON
영어에 능통하고 용모단정하며
보석판매 경험자 우대함 카나다에서
고졸이상인자에 한함
☎ : 979-3196 고 려 보 석

구 인
미시사가 LORNE PARK지역. 경험있는 가게헬퍼구함
☎ : 278-8101, 822-4179

살림해주실분 구함☎ :
☎663-1053 244-7303 (Mrs. LEE)

출퇴근 하시면서 4살 남아 돌봐주실분
그리고 산모를 돌봐 주실분 $500지불함) 후대함
143 WOOD WARD AVE.
WESTON, ONT. (JANE+CHURCH)
☎ : 242-2064,(R), 633-6813(B)

주방헬퍼구함 : 남녀 각각1명
웨이트레스 1명구함 한국관
☎ : 536-0290

스토아 매니저 구함
보증금 $15,000(스탁의 ½)
☎ : 781-8968 미스타 정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
MAIN & GERRARD ST. 지역
☎ : 691-3363

유경험자 캐쉬어구함 : 다운타운에 있는 밀크스토아
오전8시~오후5시까지
☎ : 925-0339

스토아 헬퍼 구함 :
학생(남자) 파-타임(주중, 토·일요일)
☎ : 762-1572, 769-9854 미스타 김

FULL TIME HELPER구함 : 남자 유경험자에
한함 막일과 CASHER를 함께 할 사람요.
☎ : 534-3338

스토아 헬퍼구함 :
무경험자도 가능(훈련시킬 것임)
☎ : 884-8342

도나스 샾에서 주중에는 오후 또는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스카보로지역)
☎ : 284-9325

주말에 맥스 밀크에서 일할분
CASHER할분
☎ : 266-3644 미스타 김

웨이터, 웨이트레스 구함
일본 레스트랑
☎ : 977-9519

그로서리 스토아를 맡아 성실히 운영하실분을(메니저) 급히 찾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직접오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인수를 원하실 때는 아주 저렴한 DEAL로 양도하는것도 고려중입니다. 주소 : 393 EGLINTON AVE. E.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 구함.
오후3시~밤 11시까지 (주6일) ☎ : 921-0624.

도낫·캣쓸 : (도나스·샾)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풀타임, 파트타임)
398 CHURCH ST.(다운타운지역)
☎ : 977-0303

매매및 양도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조그만 가게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람
61 MAIN ST. TOR. ☎ : 694-7848

바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 성업중인 스토어를 형편상 급매
코저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531-0773 김 (오후6시 이후)

"급 매"
POP COOLER 1 DOOR
☎ : 663-1598 미스타 서

맥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2500달러.
1430 Dundas w. ☎ : 531-0773, Mr. 김

FAST FOOD 프렌차이즈회사 매매
12년동안 잘 건설된 비즈네스 퇴직상 매매코자 함.
캐나다에 정식 등록된 회사명, 프라이드 취킨을 전문.
본 회사는 지금 4번 발행 100만 주식을 보유함
이 비즈네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람.
(요리법, 고정손님, 빌딩등은 캐나다 어느곳에서든지 얻을수 있음.)
Chick-N-Joy Systems Ltd.
P.O. Box 327,
WestHill, Ont., M1E 4R8

작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가격 : $30,000+스탁
☎ : 266-5715(오후6시 이후 연락바람)

프렌차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
1169 WOODBINE AVE.
☎ : 423-7939

GROCERY STORE매매 :
토론토서 160km서북방에 있는 타운. STORE 2000sq. ft
2층에 방7개, 연매상 $20만, 요구액 $10만(건물포함)
1주일 57시간 개점(일요일 휴점)
☎ : 1-519-327-8368 MR. CHAE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2000, 권리금 $8000, 렌트 $590
뒤에 살림집 방2개 ☎ : 259-0869

맥스밀크 권리양도
연매상 34만달러, 연간경비 4만5천달러, 연수입 4만달러
스탁 2만5천달러, 권리금 3만5천달러, 리스 84년8월10일까지 옵션 10년
주소 : 600 THE EAST MALL RD.
☎ : 622-6155, 762-1264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중)
☎ : 781-7305

미니슈퍼마켓 매매
주매상 7천달러 이상(5일영업), 렌트 $1200,
리스5년+5년, 가격 6만달러+스탁
☎ : 368-1917

<매 매>
3년된 세탁기, 3년된 DRY MACHINE, 1년된
스토브, 1년된 냉장고, 고급 응접셋트(1년됨)를
염가에 팝니다.
☎ : 275-8016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AGINCOURT)
스토아 주인이 병환으로 급히 매매코자 함.
ASKING가격 $35,000, 장소 : 매우 바쁜 프라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A. E. LEPAGE복덕방)
492-7333 KEN MARESCAUX

렌트

세 놓습니다 : 2 BEDROOM APT. SABLET.
미시사가 있음.
☎ : 421-2276, 279-4997 미스타 박

집세놓습니다 : 스카보로지역
방4개, 화장실2개, 지하실 있는 단층집
☎ : 968-9405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미 용

스 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구독신청 ☎533-2361

25萬弗에 팔린 邦畫

쿵후영화 「醉八拳狂八拳」
美등 세계全域 배급합의
死境邦畫界에 회생방향 제시

우리나라의 쿵후영화가 邦畫사상 최고가인 25만달러로 세계시장에 수출된다. 東協商事가 수출영화로 제작중인 「醉八拳狂八拳」이 바로 거액의 달러 보따리를 끌어들인 영화로 오는 9월하순에는 南美, 中東지역을 비롯한 세계무대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취팔권 광팔권」의 수출은 영화제작사인 東協商事가 邦畫의 활로를 세계시장에서 타개해보자는 의도 아래 美배급회사인 유나이트·월드 필름과 수출교섭을 벌인 끝에 이뤄진 것이다.

美國은 물론 南美, 中東, 東南亞지역에 배급망을 갖고 있는 유나이트·월드 필름은 전세계시장의 판권을 점유하는 조건으로 25만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시, 쌍방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3월26일 유나이트·월드 필름이 「東協」에 수입가를 명시한 신용장을 보내옴으로써 밝혀졌다. 「東協」은 이 신용장을 근거로 당국에 수출용영화제작신청을 했고, 당국으로부터 「국내의무제작편수와는 별도로 제작하는 수출용」승인을 받아 제작에 들어갔다 한다.

「취팔권 광팔권」은 유나이트·월드 필름의 요구에 따라 홍콩의 무술스타를 주연으로 기용해 狂拳의 대결을 그린 코믹터치 쿵후영화. 우리나라에도 소개했던 成龍주연의 「醉拳」과 동류의 영화다.

우리나라의 쿵후영화가 美洲지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 발판을 구축하게된것은 세계적인 쿵후영화붐과 홍콩의 쿵후영화제작부진으로 풀이된다.

홍콩영화는 곧 쿵후영화라는 대명사가 붙을만큼 李小龍·成龍주연의 쿵후영화를 제작, 세계시장에 보급해 왔다. 美國을 비롯한 남미지역에서 李小龍·成龍붐을 일으킨것이 바로 홍콩영화였으나 최근 불황으로 제작이 부진하다는 것. 成龍주연의 「취권」「사형도수」「사제출마」「베틀 크리크」「소권괴초」등 5편은 서울개봉에서 연인원 2백50만명을 동원했고, 美洲지역에서도 크게 히트했다는것.

邦畫의 수출용제작은 申相玉감독의 「女갑반」을 비롯해 여러편이 시도되었으나 수출가가 낮고 시장이 좁아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다. 이번 「취팔권 광팔권」의 고가수출은 지금까지의 邦畫가 편당 2만달러 내외로, 그것도 동남아 일부에 수출됐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이라 할수있다. 東協商事측은 「취팔권 광팔권」외에도 1편의 영화를 수출용으로 제작준비 중임을 밝히고 『방화 불황을 이겨내기위해서는 한정된 국내시장보다 광대한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서구인들의 취향에 맞는 액션영화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李章基기사】

◇한국영화사상 최고가인 25만달러에 수출되는 「醉八拳狂八拳」의 한장면.

연예인海外就業 해마다 증가추세

【서울=聯】 연예인의 해외취업이 크게 늘고있다. 演藝協會의 집계에 따르면 해외취업연예인이 78년에 3백36명이었던 80년에는 1천1백69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7월31일 현재 1천1백80명에 달하고있다.

이들 해외취업연예인은 최저 월8백달러 외에 숙식제공의 조건으로 4개월이상 공연이라는 계약이 있어야 출국이 가능하다.

지난 7월31일까지 취업한 해외취업 연예인을 분야별로보면 무용이 5백8명으로 가장많고 다음이 가수 479명, 연주1백74명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日本이 전체의 90%가넘으며 나머지는 대만, 홍콩등 동남아지역과 美洲, 유럽등에 흩어져있다. 취업업소도 유명업소 보다는 우리나라교포가 운영하는 유흥업소가 주류를 이루고있다.

"저녁이 뭘까 궁금한데?" "으음, 맛있어보이는데!" "멍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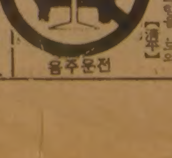
싸다고 소문 난 가나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67
(R) 252-8602
유 원 머

地方短信

◇트럭移動도서관운영키로 부산시립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오는 9월1부터 트럭에 이동도서관을 설치, 운용키로했다. 20일 시립도서관에 따르면 1톤짜리 트럭 적재함에 서가를 만들어 문학및 교양서적 1천5백권을 진열, 아파트단지등을 순회하면서 독서회원을 모집, 무료로 책을빌려주고 20일에 한번씩 다른책과 교환해주기로했다.【釜山】

◇街路樹에 흰불나방극성 전북南原지방에 최근 흰불나방이 크게번져 가로수와주택가수목들이 피해를 입고있다. 20일 南原市에 따르면 흰불나방이 지난6월부터 시외곽지대에 번지기시작, 이달들어 가로수와주택가수목을휩쓸어 3만여그루가 피해를 입고있다.【南原】

◇外西面에 낫1백자루기증 서울江南區新洞148 李康浩씨(45·상업)는 지난19일 外西面퇴비증산에 필요한 낫1백여자루를, 또 外西面上泉里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姜秀榮씨(34)가 돼지1마리를 金萬敎外西면장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李씨는 관내가 고향이며 淸州中學출신으로 평소에도 고향을 도와왔다.【淸州】



灰色 노우트 ⑫

趙善作 作
禹慶熙 畫
<180>

그는 컵을 단숨에 비웠다. 그런 다음 빈컵에 또 맥주병을 기울이며 말했다.
『술 마시면서 여편네 얘기는 우리 하지맙시다』
말끝에 그는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선생님도 아까 그남자분들이랑 다를 게 없는 모양이죠?』
『비슷해. 아니, 더 무서워 하지. 그러니까 낮이 입에 올리는것마저 싫어 하지. 이젠 그만 합시다』
그가 지겨워 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또 사라진 그를 떠올렸다. 이제 뛰쫓아나가야 그를 따라잡을수 없으리라고생각했다. 밤거리의 미아(迷兒)가 될 뿐이며, 잃은 자의 슬픔 뿐이랑, 허망한실물감(失物感)이 내 가슴을 비게 했다. 그 빈 공간에 맥주가 조금씩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J씨의 모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한 가운데 꼬리가 달린 암자색의 베레모는 퍽 인상적이었다. 저런 것을 쓰고 다니려면 용기가 필요할거야, 라고 나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이 남자는 몇살쯤 되었을까. 서른 다섯, 여섯? 그러나 그것은 사라진 그의 나이였고, J씨는 그보다 몇살 많을 것 같았다. 그에게 나이를 물어볼까 하다가 시시한 화제라는 생각으로 나는 그만 두었다. 얼마쯤 침묵이 계속되었다. 나는 그가 새로 가져온 두병의 맥주를 언제 다 마시나 갑갑한 느낌이었다. 내 컵에는 맥주가 아직도 절반 이상 남아있었다. 나는 그것을 쓴약처럼 마셨다. 놀라는 표정으로 그가 내 빈컵을 끌어당겨 다시 하나 가득 부어 놓았다.
J씨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까지 겨우 한 잔이지?』
『두 잔요』
내가 웃으면서 대답했고,

J씨는 머리를 저었다. 내가 다시 말했다.
『한 잔반요. 처음 시켰을 때 반 잔을 마신 데다 선생님이 또 가득 따랐잖아요?』
『맞았어. 하지만 요것까지는 다 마셔야 해』
『이걸 다 마시면 전 죽어요』
『죽어?』
『네』
『죽이겠어. 탕 탕』
그가 손가락 총으로 나를 쏘았다. 나는 가슴에 철판을 단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쓰러지지 않았다. J씨가 또 술잔을 비웠다. 나는 많이 남은 병을 골라 그의 컵에 따랐다. 술따르는 내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며 그가 말했다.
『미스 안이야 말로 날 죽일 작정이로군』
『제가요?』
『속도전에는 당할 장사가 있나. 앞에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서 컵이 비기가 무섭게 따라붙곤 하니까. 바른 일이라도 있소?』
과연 내가 그랬구나, 하는 느낌으로 나는 웃어 보였다.
J씨가 다시 말했다.
『아까 둘이 소주를 두 병 마셨어요. 영 취하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이젠 넘 아무군. 잠깐만 실례합시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어서니까 그는 비척했다. 놀라서 나는 그를 부축했다. 그런데도 그는 나를 뿌리치고 무사히 화장실까지 다녀왔다.
『갑시다』
박스로 돌아온 그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말했다. 테이블위에는 가득 따라 놓은 술잔 두 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내가 웃옷을 챙겨들고 일어서는 동안 그는 카운터로 갔다.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 그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미스 안의 착복식은 유예해 둡시다. 이젠 언제든지 내 권리요』